



바른답·알찬풀이

갈래 특강

시12~14쪽

1 운율, 압축 2 주제 3 운율 4 심상 5 ① 6 시각적 심상 7 청각적 심상 8 후각적 심상 9 직유법 10 ○ 11 ○ 12 '나'

작품에서 확인하기 ① 반복 ② 시각적, 미각적, 후각적 ③ 알

5 ①
이 시에 행동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 오답 해설
- ② 화자는 '강변 살자'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강변에 살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시는 운율, 즉 음악성이 있는 문학이므로 노래로 만들 수 있다.
- ④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문장이 반복되어 리듬감이 나타난다.
- ⑤ '엄마야V누나야V강변 살자. / 딸에는V반짝이는V금모래 빛. / 뒷문V밖에는V갈잎의 노래 / 엄마야V누나야V강변 살자.'와 같이 끊어 읽을 수 있다. 동일한 끊어 읽기가 반복되면 운율이 생긴다.

6 시각적 심상
'푸른, 하얀'이라는 색채는 눈을 통해 보게 되는 빛깔이다.

7 청각적 심상
'빠꼭빠꼭'은 새 울음소리이므로 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다.

8 후각적 심상
'진달래 향기', '보리 냄새'는 코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다.

11 ○
'엄마야, 누나야'라고 부르는 말에서 시의 화자가 남자아이, 즉 소년임을 알 수 있다.

소설15~17쪽

1 ㉠ 2 ㉡ 3 서술자 4 ○ 5 × 6 위치 7 전지적 작가 시점 8 1인칭 주인공 시점 9 × 10 전개 11 위기 12 ②

작품에서 확인하기 ① 경환 ② 등장하지 않는 ③ 전지적 ④ 바우 ⑤ 외적 ⑥ 아버지 ⑦ ㉠-절정, ㉡-결말

4 ○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다.

5 ×
소설 <소나기>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7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말과 행동, 심리 변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8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인 '나'가 전달하므로 1인칭 시점이고, 자신이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생각, 즉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주인공 시점이 된다.

9 ×
인물이 외부의 다른 대상인 다른 사람, 사회 제도, 자연, 운명 등과 일으키는 갈등은 외적 갈등이다.

희곡·시나리오18쪽

1 ① 2 × 3 × 4 해설 5 대화

1 ①
시나리오는 공간의 제약이 적고, 촬영 및 편집 기법이 발달하여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지만, 희곡은 공연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에 제한이 있다.

2 ×

희곡과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는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으로 전개된다.

수필

19쪽

1 수필 2 ㉠ 3 ㉡ 4 ㉢ 5 ㉣ 6 자서전

5 ㉣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떤 글감을 선택하는지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만, 문장을 어떤 길이로 쓰는지 어떤 표현 방법을 많이 쓰는지 등에 따라서도 개성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을 개성이 드러나는 글로 본다.

설명문

20쪽

1 정보 2 ㉡ 3 ㉢ 4 × 5 정의 6 대조 7 예시

2 ㉡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은 글의 처음 부분에서 해야 한다. 독자들이 글의 앞부분을 읽어 보고 관심이 생겨야 계속 글을 읽어 나가기 때문이다.

4 ×

설명문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되는 것은 곧 내용이 체계 있게 전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체계성’에 대한 설명이다. ‘객관성’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지식을 담는 특징을 말한다.

논설문

21쪽

1 논설문 2 서론, 본론 3 ㉢ 4 × 5 ㉡

2 서론, 본론

설명문과 논설문은 보통 3단계로 내용을 전개하는데 시작하는 부분, 본격적으로 내용을 쓰는 부분,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이를 설명문에서는 ‘처음-중간-끝’이라고 부르고, 논설문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이라고 부른다.

5 ㉡

논설문은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독자들을 설득하는 글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주장을 펼쳐야 한다. 객관적인 정보를 잘 전달하였는지 판단해야 할 글은 설명문이다.

1.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1) 길

✓

확인 문제

28쪽

1 ①

2 ⑤

3 ①

4 토실토실

1 ①

1연의 1행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인 ‘길’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보조 관념)인 ‘포도 덩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포도송이’는 2연의 2행에서 원관념인 ‘마을’을 빗대기 위해 그것과 유사한 대상인 보조 관념으로 사용한 대상이다.
- ③ ‘마을’은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으로, 2연의 2행에서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보조 관념)인 ‘포도송이’에 빗대고 있다.
- ④ ‘포도알’은 2연의 3행에서 원관념인 ‘집’을 빗대기 위해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으로 사용한 대상이다.
- ⑤ ‘한 덩이 과일’은 5연의 1행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인 ‘세계’를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으로 사용한 대상이다.

2 ⑤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같이(같은)’, ‘처럼’, ‘듯이’, ‘인 양’ 등과 같이 이어 주는 말로 결합하여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 원관념인 ‘마을’과 ‘집’을 각각 보조 관념인 ‘포도송이’와 ‘포도알’에 ‘같은’이라는 이어 주는 말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대유법’은 어떤 사물의 부분이나 특성으로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②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이어 주는 말 없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③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④ ‘활유법’은 생명이 없는 사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3 ①

‘마을’이 길마다 붙어 있듯이 ‘포도송이’가 포도 덩굴 가지마다 붙어 있다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마을’을 ‘포도송이’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4 토실토실

5연의 2행에서 음성 상징어 중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 ‘토실토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가 한 덩이 과일 이 되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30~35쪽

1 ③

2 ⑤

3 ③

4 ①

5 ③

6 ④

7 ⑤

8 ④

9 ①

10 ⑤

11 ⑤

12 반복

1 ③

2연에서 ‘포도알’은 ‘집’을 비유하는 대상이며, ‘포도 송이’는 ‘마을’을 비유하는 대상이다. 집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모습을 포도알이 모여 포도송이를 이루는 모습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포도알이 포도송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3연을 통해 ‘포도알’이 늘면서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커 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② 4연을 통해 ‘덩굴’ 같은 길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마을이 이어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1연에서 ‘길’을 ‘포도 덩굴’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길’이 여러 군데로 나 있는 모습이 이리저리 뻗어 있는 ‘포도 덩굴’의 모습과 유사하여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⑤ 2연에서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는 모습을 ‘포도알’이 모여 ‘포도송이’를 이루는 모습에 직접 빗대었다. 이를 통해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2 ⑤

4연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5연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짐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성장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3 ③

〈보기〉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다. 〈보기〉에는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이어 주는 말 없이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인 ‘길’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인 ‘포도 덩굴’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표현하려는 대상인 원관념은 ‘길’이다.
- ② 빗대어 표현한 대상인 보조 관념은 ‘포도 덩굴’이다.
- ④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는 이어 주는 말 없이 원관념인 ‘내 마음’을 보조 관념인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유법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길’을 ‘포도 덩굴’에 비유한 것은 두 대상이 여러 군데로 뻗어 있는 공통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4 ①

‘당신은 나의 태양’은 은유법이 쓰인 것으로 원관념인 ‘당신’을 보조 관념인 ‘나의 태양’에 이어 주는 말 없이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원관념인 ‘님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옥’에 ‘같은’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 ③ 원관념인 ‘눈’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샷별’에 ‘처럼’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 ④ 원관념인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여우’에 ‘처럼’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 ⑤ 원관념인 ‘꽃’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내 누님’에 ‘같이’를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5 ③

<보기>에는 ‘포도알’이 모여 ‘포도 송이’를 이루듯이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다는 공통된 속성을 바탕으로 한 비유가 쓰였다. 따라서 ‘집’과 ‘포도알’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비슷한 속성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2연에서 ‘마을’과 ‘집’은 각각 원관념으로서 보조 관념인 ‘포도송이’와 ‘포도알’에 빗대어 표현하려는 대상이다.
- ② 2연에서 ‘포도송이’와 ‘포도알’은 원관념인 ‘마을’과 ‘집’을 각각 표현하기 위한 보조 관념으로서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 ④ 마을은 길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포도송이는 포도 덩굴에 붙어 있음을 떠올릴 때 ‘마을’과 ‘포도송이’ 모두 어딘가에 붙어 자리를 잡고 있는 유사한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2, 3행에서 모두 이어 주는 말 ‘같은’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④

4연에서 사람과 사람이 돕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짐으로써 5연에서 더 큰 ‘세계’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빗대어 표현한 대상인 ‘한 덩이 과일’도 더 큰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유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 대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에서 세계를 쉽게 변하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② 이 시에서는 세계를 다양한 색깔을 가진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시에서는 세계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가진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시에서는 세계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과일 또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⑤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비유하는 표현법은 직유법이다. 표현하려는 대상인 ‘꽃잎’을 ‘눈송이’에 이어 주는 말인 ‘처럼’을 사용하여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무생물인 ‘바다’가 날갯짓을 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 ② ‘꽃’이 사람처럼 ‘웃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③ ‘뺑’으로 식량 전체를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물의 부분이나 특성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인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④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이 활용된 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원관념인 ‘나’를 보조 관념인 ‘나룻배’에, 원관념인 ‘당신’을 보조 관념인 ‘행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8 ④

‘길마다’를 비유법을 사용하여 ‘이 덩굴 가지마다’로 표현하였을 때, 더 감각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오답 해설

- ①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사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지는 이리저리 뻗어 있는 모습이므로, 하나의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의 형태를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①

줄글의 형태인 ㉠을 읽을 때와 달리 ㉡를 소리 내어 읽을 때 노래를 부르는 듯한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는 ㉡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운율은 규칙적인 반복으로 형성된다.

③ ㉡에서 말하는 이인 화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머뭇거리는 정서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에서는 힘차고 강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며,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를 비유법과 운율을 활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⑤ 운율을 통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0 ⑤

<보기>에 제시된 표현에는 모두 받침 ‘ㄹ’ 소리가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시 전체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시에는 의성어가 아닌 의태어 ‘토실토실’이 5연에서 사용되었다.

② <보기>의 시어들을 통해서는 모두 일정한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규칙을 확인하기 어렵다.

③ <보기>의 시어들을 통해서는 이 시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보기>의 시어들은 규칙적인 끊어 읽기와 관련 없다.

11 ⑤

이 시에서 운율을 통해 시적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이 시에서는 운율을 통해 시의 음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③ 이 시에서는 운율을 통해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에서는 운율을 사용함으로써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2 반복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말한다. 규칙적인

반복이 있어야 리듬감이 생성되고 음악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36~39쪽

1 ①	2 보슬보슬, 알롱알롱	3 ⑤	4 ①
5 비슷(유사)	6 ③	7 ②	8 ④

1 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은 의인법이다. ‘해님’을 ‘웃는다’라고한 것은 ‘해님’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원관념인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옥수수대’에 이어 주는 말인 ‘처럼’을 결합하여 비유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③ ‘동무들아 이리 오나’에는 의인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관념인 ‘햇비’를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아씨’에 ‘처럼’을 결합하여 비유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⑤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원관념인 ‘무지개’를 보조 관념인 ‘하늘 다리’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쓰였다.

2 보슬보슬, 알롱알롱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의 흉내 내는 의태어(음성 상징어)로 1연의 2행에서 ‘보슬보슬’, 2연의 2행에서 ‘알롱알롱’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⑤

‘돌담’, ‘햇밭’, ‘샘물’ 같은 시어에서 ‘ㄹ, ㅁ’ 소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유법은 어떤 사물의 부분이나 특성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방법으로, 이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③ <보기>에는 의성어 혹은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 ①

‘산들이 날개를 편다.’는 표현은 무생물인 ‘산’을 생물인 ‘새’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의인법이 아닌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② ‘한강이 노래를 부른다.’는 ‘한강’을 사람에 빗대어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③ ‘지리산이 꺾꺾 웃는다.’는 ‘지리산’을 사람에 빗대어 ‘웃는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④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은 ‘샘물’을 사람처럼 ‘웃음 짓는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⑤ ‘옛이야기 속삭이는 실개천’은 ‘실개천’을 사람에 빗대어 ‘속삭인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5 비유(유사)

비유 표현을 만들 때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하려는 대상 사이에 비유(유사)한 점이 있어야 비유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6 ③

할머니의 손에서 보이는 주름을 통해 세월의 흔적을 느낀다고 하였지만 할머니의 손을 특정 대상에 빗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원관념인 ‘가을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아름다운 노래’에 ‘같은’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 ② ‘바람’에 ‘장난꾸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의인법에 해당한다.
- ④ 원관념인 ‘어린 시절의 추억’을 표현하기 위해 이어 주는 말 없이 보조 관념인 ‘무지개’에 빗댄 것으로 은유법이 쓰였다.
- ⑤ 원관념인 ‘봄’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솜사탕’에 ‘처럼’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7 ②

원관념인 ‘봄’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 관념인 ‘비행기’에 이어 주는 말 ‘처럼’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또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같은 소리를 반복한 음성 상징어인 ‘뚝뚝’을 사용하였다.

8 ④

운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나 단어 등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요소가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운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시에서는 시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기 때문에 객관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운율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 ② 시를 소리 내어 읽을 때 무조건 호흡 단위가 짧도록 시의 내용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징에 해당한다.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는지 여부를 통해 운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비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공통점 혹은 유사성이 존재해야 하며 운율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마무리 어휘 학습

41쪽

- 1 ⑤ 2 (1) ○ (2) ○

1 ⑤

‘참신하다’는 ‘새롭고 산뜻하다.’라는 뜻으로, 문맥상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상황에 들어가기에 알맞다.

오답 해설

- ① ‘대신하다’는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다.’라는 뜻이다.
- ② ‘둔감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뜻이다.
- ③ ‘조신하다’는 ‘몸가짐이 조심스럽고 암전하다.’라는 뜻이다.
- ④ ‘참견하다’는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여 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다.’라는 뜻이다.

2 (1) ○ (2) ○

- (1) ‘빗대다’는 ‘곧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말하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곧바로 말하지 않고 ‘놀부’라는 대상을 사용하여 빗대어 표현한 상황이다.
- (2) ‘토실토실’은 ‘보기 좋을 정도로 살이 통통하게 찐 모양.’을 의미하며 잘 먹는 아기의 볼살을 꾸며 주는 말로 적절하게 쓰였다.

학습 제재 정리 **꼭!**

세계, 운율, 길

학습 내용 핵심 **꼭!**

1 ④ 2 ② 3 ①

1 ④

㉠은 은유법, ㉡은 직유법이 쓰인 표현이다. 포도송이와 포도알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여 친숙한 감정이 들게 하는 것은 의인법에 해당하지만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은 은유법이 쓰인 것으로 원관념인 ‘길’을 보조 관념인 ‘포도 덩굴’에 이어 주는 말 없이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 길을 포도 덩굴에 비유한 것은 여러 군데로 뻗어 있는 모양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 ③ ㉡에서 연결어 ‘같은’을 사용하여 원관념인 ‘마을’과 ‘집’을 보조 관념인 ‘포도송이’와 ‘포도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는 모습이 포도알이 모여 포도송이를 이루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속성을 고려하여 직유법을 사용한 것이다.

2 ②

㉠의 직설적인 표현을 ㉡의 비유법이 사용된 표현으로 바꾸면 표현하려는 대상인 ‘길’, ‘마을’이 보다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느껴진다.

오답 해설

- ① 비유법이 사용되었지만 화자의 어조가 차분하게 바뀐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 ③ 비유법을 통해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대화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3 ①

‘포도 덩굴’, ‘포도송이’, ‘포도알’에서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다섯 마디씩 끊어 읽기가 반복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소리를 흉내 내는 음성 상징어(의성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각 연마다 일정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단원 핵심 문제

-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① 08 ① 09 길과 포도 덩굴은 모두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01 ⑤

이 작품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포도의 모습에 빗대어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은유법과 직유법 등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허구적 존재이다. 이때 작품에 ‘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시는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담아 내는 갈래이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시에서는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를 비유와 운율을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 일상의 체험을 통해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시는 연의 구분이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02 ④

5연의 2행에서 ‘토실토실’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로 모두 음성 상징어에 속한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비유법은 의인법이며 이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을 그려 내고 있으며, 밝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또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에서는 시련을 겪는 상황이나 그런 의미의 시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

03 ②

<보기>는 비유가 쓰이지 않은 표현으로, ‘길’과 ‘마을’, ‘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A]는 비유를 사용하여 ‘길’, ‘마을’, ‘집’을 각각 ‘덩굴 가지’, ‘포도송이’, ‘포도알’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무생물을 살아 있는 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활유법에 해당하며, 이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보기>에서는 ‘마을’과 ‘집’을, [A]에서는 ‘포도송이’, ‘포도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A]에서는 ‘포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④

<보기>의 선생님이 설명하는 비유법은 직유법이다. 직유법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보기>의 ㉠은 보조 관념으로, 원관념인 ㉡를 표현하기 위해 이어 주는 말로 연결한 대상이다. 이 시에서 직유법이 쓰인 표현은 ‘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이며 이때 원관념은 각각 ‘마을’, ‘집’이고, 보조 관념은 ‘포도송이’, ‘포도알’이다.

오답 해설

① ‘포도 덩굴’은 원관념인 ‘길’을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 관념이다. 다만 ‘무엇(원관념)은 무엇(보조 관념)이다.’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한 은유법에 해당하므로 선생님의 설명과 다르다.

② ‘포도 덩굴’은 ‘길’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 관념으로 ‘땅덩이’를 비유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 아니다.

③ ‘포도송이’는 마을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 관념으로 ‘덩굴 가지’를 비유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 아니다.

⑤ 2연 3행에서 ‘집’은 원관념이며 이를 빗대기 위해 ‘포도알’

을 보조 관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이라는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한 직유법이 쓰였다. 따라서 ‘포도알’은 ㉠에, ‘집’은 ㉡에 해당한다.

05 ④

4연의 ‘갈봄 없이 자라 가는’에선 ‘갈봄’은 단순히 가을과 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마을은 특정한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덩굴 같은 길을 통해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마을이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는 길을 포도 덩굴에 비유하며 포도 덩굴처럼 뻗어 난 길을 보여 주고 있다.

② 2연에서는 마을과 집을 포도송이와 포도알에 비유하며 길마다 달린 마을과 집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3연에서는 집이 늘어날 때마다 커지는 마을의 모습을 포도알과 포도송이를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5연에서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세계를 한 덩이 과일에 비유하여 보여 주고 있다.

06 ⑤

㉠에는 은유법, ㉡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에서 ‘내 마음(원관념)’을 ‘호수(보조 관념)’에 이어 주는 말 없이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나타나며, ‘나(원관념)’를 ‘옥(보조 관념)’에 이어 주는 말인 ‘같이’를 사용하여 비유한 직유법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이어 주는 말 없이 ‘마음’을 ‘구름’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은유법이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조사 ‘처럼’을 사용하여 ‘나’를 ‘찬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발소리’를 ‘같은’을 사용하여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모두 직유법에 해당한다.

④ ‘논길’을 ‘같은’을 사용하여 ‘가르마’에 빗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7 ①

시인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 성숙해가는 더 큰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한 덩이 과일’도 ‘세계’와 공통적으로 서로 이어져서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시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싶은 시인의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서는 식량이 넉넉하고 풍족한 세상을 꿈꾸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에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바람을 그리고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는 정서 또한 확인할 수 없다.

08 ①

〈보기〉에서는 ‘해님이 웃는다’, ‘웃는다’와 같은 구절의 반복이나 ‘-게’의 반복, ‘보슬보슬’, ‘알롱알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땅덩이’, ‘덩굴’, ‘포도송이’에서 ‘ㅇ’ 소리가 반복되며, ‘길’, ‘(포도) 덩굴’, ‘마을’, ‘포도알’, ‘갈봄’, ‘토실토실’에서 ‘ㄹ’ 소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는 ‘해님이 웃는다’ 등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 시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표현은 청유형이며 〈보기〉에서는 ‘맞아 주자 다 같이’, ‘노래하자 즐겁게’, ‘다 같이 춤을 추자’라는 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 시에서는 청유형의 표현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서는 ‘보슬보슬’, ‘알롱알롱’이라는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이 시에서는 ‘토실토실’이라는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이어 주는 말 없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는 ‘길은 포도 덩굴’, ‘세계는 한 덩이 과일로’에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보기〉에서는 ‘하늘 다리 놓였다 / 알롱알롱 무지개’에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09 서술형 길과 포도 덩굴은 모두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길’과 포도 덩굴 ‘모두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두 대상 사이에 이러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은유법)를 활용한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2) 사랑하는 별 하나

확인 문제

50쪽

1 (1) × (2) ○ 2 ② 3 ③ 4 ④

1 (1) × (2) ○

(1) 이 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될 수 있을까’ 및 ‘갖고 싶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2) 이 시의 1연에서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원관념인 ‘사람’을 보조 관념인 ‘별’에 빗대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2 ②

이 시에서 ‘꽃’과 ‘별’은 화자가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대상으로,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외롭고 쓸쓸한 존재는 화자를 의미하며 ‘별’과 ‘꽃’은 그런 화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다.

③ ‘별’과 ‘꽃’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여유 있게 삶을 즐기는 존재와는 관련이 없다.

④ ‘별’과 ‘꽃’이 시련을 겪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련을 극복해 내는 존재와는 관련이 없다.

⑤ ‘별’과 ‘꽃’은 목표를 추구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③

이 시의 화자 ‘나’는 1연과 2연에서 별과 같은 사람, 하얀 들꽃이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3연과 4연에서는 사랑하는 별 하나, 마음 어두운 밤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람 하나를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세상일에 당당히 맞서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 ④

‘밤’은 마음이 어두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에게 괴롭고 힘든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의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 시에서 화자와 휴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③ 화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에서

‘밤’을 그리움의 시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밤’은 마음이 어두운 화자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성이 있으며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52~55 쪽

- 1 ② 2 ⑤ 3 ③ 4 별 5 ⑤
6 ③ 7 ②

1 ②

이 시의 화자 ‘나’는 1연에서 ‘외로워’, 2연에서 ‘괴로워’ 등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4연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마음 어두운 밤’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누군가와 이별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추측하기 어렵다.
③ ‘나’가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별과 꽃 등의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⑤ ‘나’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뿐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⑤

‘하얀’은 돋보이지 않는 순수함, ‘들꽃’은 평범하면서도 위안이 되는 존재를 상징한다.

오답 해설

- ① ‘별’은 자신이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가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의미한다.
② ‘밤’은 ‘나’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③ ‘맑은 눈빛’은 ‘나’가 힘들 때 길을 이끌어 주며 마음을 치유해 주는 ‘그런 사람’의 눈빛을 의미한다.
④ ‘그런 사람’은 괴로움에 놓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3 ③

‘별’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

한 존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눈 마주쳐 마음 비춰 주는’은 화자가 외로워할 때 그 외로움을 달래 주는 따뜻한 태도임을 알 수 있다.

4 별

이 시에서 외롭고 힘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는 ‘별’과 ‘꽃’이다.

5 ⑤

‘별’과 ‘꽃’은 힘든 상황에 놓인 이에게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해 주는 의지가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별’과 ‘꽃’은 외롭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에게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위로의 말을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힘든 상황에 놓인 이에게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는 말은 따뜻한 위로는 될 수 없다.
② 외롭게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지나간 일을 되새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를 따뜻한 위로로 보기 어렵다.
③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을 거라며 예고하는 행위는 따뜻한 위로로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에게 당장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행위는 따뜻한 위로로 보기 어렵다.

6 ③

가[㉠]는 표현하려는 것이 직접 드러난 반면 나[㉡]는 상징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상징을 활용하면 시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독자는 시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으며, 작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해당 구절에서는 직유법이나 은유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상징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⑤ 상징은 표현하려는 추상적 개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만 드러나서 구체적 대상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7 ②

상징은 작가가 표현하려는 추상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만 드러내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상징을 통해 작가는 구체적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작품의 의미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 ③, ④ 상징을 활용하면 독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된다.
- ⑤ 상징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56~59 쪽

1 ③ 2 ④, ⑤ 3 행복 4 ⑤ 5 물

1 ③

이 글에서 티틸과 미틸 남매는 파랑새를 찾는 여정 중 행복의 나라를 방문한다. 행복의 나라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바뀌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야기 속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위를 비판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티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는 여정을 대화 위주로 서술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⑤ 티틸은 꿈에서 깨어나지만 현실에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2 ④, ⑤

남매는 행복의 나라에서 이곳에 파랑새가 있는지 묻지만 파랑새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를 듣고 실망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남매가 행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찾으려 하면서 자신들이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 ② 티틸은 행복의 나라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언급하는 행복의 종류를 듣고 자신의 집에 행복이 많다는 사실을 놀라워한다.

- ③ 티틸이 꿈에서 깬 뒤 집의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3 행복

작가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꿈에서 깨어난 뒤 집 안에 ‘파랑새’가 있음을 발견하는 장면을 통해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4 ⑤

상징물은 표현하는 이에 따라 주관적인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대상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명언을 활용한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둠별로 마음에 드는 명언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② 명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모둠원과 토의를 진행하며 명언의 의미를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③ 명언의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 ④ 명언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시의 주제를 정해야 한다.

5 물

〈보기〉의 화자는 임에게 ‘물’을 건너가지 말 것을 애원하고 있지만 임은 ‘물’을 건너 죽음에 이르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시에서는 ‘물’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마무리 어휘 학습

61쪽

1 ⑤ 2 (1) ○ (2) ○ (3) ○

1 ⑤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으로, 상상력이 많아서 작가로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의미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다.

오답 해설

- ① ‘부유하다’는 ‘재물이 넉넉하다.’라는 뜻이다.
- ②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 ③ ‘빈곤하다’는 ‘가난하여 살기가 어렵다.’ 또는 ‘내용 따위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자라서 텅 비다.’라는 뜻이다.
- ④ ‘진부하다’는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2 (1) ○ (2) ○ (3) ○

- (1) ‘우러러’의 기본형 ‘우러르다’는 ‘위를 향하여 고개를 정중히 쳐들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들고 경례를 한다는 의미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 (2) ‘조잘대다’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을 계속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자연스럽다.
- (3) ‘쓸쓸히’는 ‘외롭고 적적하게.’를 의미한다. 따라서 집에 혼자 외롭게 있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자연스럽다.

소단원 핵심 정리

62~63쪽

학습제재 정리 **꼭!**

꽃, 갖고 싶다, 별

학습내용 핵심 **꼭!**

1 ⑤ 2 ① 3 ③

1 ⑤

시인은 ‘별’과 ‘꽃’을 통해 외로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존재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인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별’과 ‘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 ③ 시인은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별’, ‘꽃’과 같은 따뜻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따라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④ 시에서는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가 나타나지만 사랑하는 이와 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2 ①

이 시의 ‘나’는 외롭고 쓸쓸하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는 하얀 들꽃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들꽃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 ③ ‘나’가 세상일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해하고 있다.
- ④ ‘나’가 마음 어두운 밤을 지나 밝은 아침을 맞이한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가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3 ③

[A]는 상징을 활용하지 않아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전해지는 표현인데, 이와 달리 [B]는 상징을 활용함으로써 [A]보다 독자가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가 하나로 압축되어 전달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상징적 시어가 활용됨으로써 독자는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 ② 독자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④ 작가는 상징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 ⑤ 독자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64~65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② 05 ②

06 꽃,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07 ③ 08 ③ 09 ⑤

01 ④

이 시는 ‘별’과 ‘꽃’이라는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외로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다. 각 연의 마지막을 ‘될 수 있을까’, ‘갖고 싶다’로 마무리하며 화자 ‘나’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1연의 ‘외로워’, 2연의 ‘괴로워’라는 시어를 통해 현실의 상황이 고통스러움을 추측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화자가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시에서는 대상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④

이 시의 화자 ‘나’는 1, 2연에서 ‘될 수 있을까’의 의문형으로 자신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후 3, 4연에서는 ‘갖고 싶다’의 표현을 통해 단정적인 어조로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어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화자가 소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깨닫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1연에서는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별처럼 눈 마주쳐 마음을 비취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② 2연에서 ‘세상일이 괴로워’라는 시구를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얀 들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힘든 상황에 놓인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4연에서는 화자를 위해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곧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고 싶은 소망이 제시되어 있다.

03 ①

이 시에서는 1, 2연의 ‘될 수 있을까’와 3, 4연의 ‘갖고 싶다’의 시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색채의 대비를 통해 밝은 현실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는 고백적 어조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시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04 ②

〈보기〉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하늘’, ‘별’, ‘바람’, ‘밤’ 등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별’은 화자에게 있어 희망, 순수한 소망, 이상적 삶, 지향점 등을 상징한다. 화자는 2행에서 언급하듯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화자가 지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의 ‘별’도 화자가 지향하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므로 〈보기〉의 ‘별’과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별’은 화자의 순수한 소망을 드러내는 대상이며, 이 시의 ‘별’과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고독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볼 수 없다.
- ③ 〈보기〉의 ‘별’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시의 ‘별’은 이와 관련이 없다.
- ④ 〈보기〉와 이 시 모두 ‘별’을 통해 지나간 추억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보기〉와 이 시의 ‘별’ 모두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이 없다.

05 ②

‘가슴에 화안히 안기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꽃의 모습을 표현하는 시구이다. 따라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④ ‘외로워’, ‘외로울 때’라는 부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마음 어두운 밤’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괴롭고 쓸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6 서술형 꽃,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별’이 하늘의 대상이라면 ‘꽃’은 땅에 있는 대상으로 서로 대응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소망의 대상인 ‘별’과 ‘꽃’은 모두 다른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

수한 존재로 화자가 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배점
소재를 찾고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소재를 찾았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소재를 찾았으나 서술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07 ③

㉠은 의문형 표현으로 별, 꽃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단정적인 어조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과 ㉡ 모두 고백적 어조로 자신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에서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에서는 자신이 갖고 싶은 대상을 단정적인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의문형 표현으로 소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탄형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에서는 의문형 어미로 끝맺지 않고 있으며 ‘갖고 싶다’라는 서술어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에서는 현실을 체념하는 듯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는 이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08 ③

<보기>의 표현은 상징을 활용하지 않아서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반면에 [A]는 ‘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적 의미가 풍부하게 다가온다. <보기>에서 [A]로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일상 언어로 내용이 명료해진다는 것은 상징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
- ④ 상징은 표현하려는 추상적 개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이 드러난다. 따라서 독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 ⑤ 작가가 의미를 부여한 상징적 시어를 통해 작품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

09 ⑤

제시된 글은 파랑새라는 구체적 대상을 활용하여 ‘행복’이라

는 추상적 개념을 표현한 동화이다. ‘우리들(행복)’은 늘 사람들 곁에 있으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답한 내용을 통해 우리 가까이 있는 행복의 소중함에 대하여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가까이 있는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⑤가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3) 매체로 소통하기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68~75 쪽

- | | | | |
|--------------|------|------|-------------|
| 1 ③ | 2 ④ | 3 ① | 4 상호 작용적 매체 |
| 5 ㉠ 학생 ㉡ 학부모 | 6 ② | 7 ① | 8 공손 |
| 9 사적 | 10 ③ | 11 ⑤ | 12 ④ |
| | | | 13 ⑤ |

1 ③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인쇄 매체를 활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일방향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④

스마트폰의 등장은 매체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이어지며 상호 작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쌍방향의 의사소통 방식은 이전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 ② 온라인상에서 주고 받는 정보의 양은 과거에 비해 확장되었다.
- ③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허물었다.
- ⑤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하면 온라인상에서 생산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3 ①

매체 소통 방식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바뀌면서 매체나 매체 자료를 만드는 사람과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 ③ 매체로 소통하는 방식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해 왔다.
- ④ 매체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 ⑤ 개인은 매체 이용자이자 생산자로, 다른 이용자와 동시적·비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4 상호 작용적 매체

상호 작용적 매체의 개념은 폭넓게 정의될 수 있는데,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쌍방향으로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5 ㉠ 학생 ㉡ 학부모

학교 누리집은 주로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6 ②

학교 누리집은 공적 정보의 공유에 초점을 둔 상호 작용적 매체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 ① 매체 이용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
- ③, ④ 정서 표현이나 친교를 위한 개인 간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의 소통 목적에 해당한다.
- ⑤ 학교 누리집은 학교와 관련된 공적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적합하지 않다.

7 ①

‘승아의 독서 계획’은 사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 블로그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공적인 정보를 다루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③, ④, ⑤ 학교의 행사 일정 및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내용이므로 학교의 공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 누리집에서 다룰 수 있는 게시물이다.

8 공손

학교 누리집을 이용하는 정보의 생산자 및 수용자 모두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학교 누리집처럼 공적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는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 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손한 태도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9 사적

개인 블로그는 개인의 생각, 의견 등 사적 정보를 다루는 매체이므로 공적 정보를 다루는 학교 누리집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10 ③

개인 블로그는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공유 이외에도 친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개인 블로그는 사용자가 해시태그,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남길 수 있다. 해시태그는 특정 핵심어 앞에 ‘#’ 기호를 붙여 써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태그의 한 형태로 이 태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블로그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개인 블로그 화면에는 생산자가 올린 글의 내용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 ④ 개인 블로그는 글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댓글 기능이 있다.
- ⑤ 수용자가 생산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하여 ‘공감’ 표시를 통해 댓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글과 관련된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1 ⑤

개인 블로그와 같이 개인의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의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자신이 공유할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공유하려는 정보가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아닌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2 ④

가~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화면을 살펴보면 은호가 올린 게시물에 해시태그, 댓글, 공유, 재전송, '좋아요' 표시 기능을 통해 이용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는 생산자가 남긴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생산자의 게시물을 다시 올리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 게시물을 전달하거나 읽게 할 수 있다. 타임 라인은 글이 게시된 시간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용자 간의 소통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13 ⑤

상호 작용적 매체는 게시물을 재공유, 재생산, 재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게시물이 다른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전송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작용적 매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② 상호 작용적 매체는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학교 누리집과 같은 공적 정보를 다루는 공간이 있으며 개인 블로그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같이 주로 사적 정보를 다루는 공간이 있다.
-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개인의 생각, 의견 등 사적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누리집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④ 상호 작용적 매체는 인터넷 및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76~77쪽

1 ⑤ 2 ⑤

1 ⑤

매체 자료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생산자는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수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할 때는 매체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매체를 생산 및 수용하고자 할 때 글의 정보에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정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③ 매체를 통해서 생산된 정보는 다른 곳으로 재전송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매체의 의사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공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소통해야 한다.

2 ⑤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보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②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
- ③ 상호 작용적 매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신이 다루고 있는 정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유의해야 한다.
- ④ 상호 작용적 매체를 통해 다루는 정보가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무리 어휘 학습

79쪽

1 ① 2 (1) ○ (2) ×

1 ①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학교 누리집은 주로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문맥상 빈칸에는 ‘공적’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오답 해설

- ② ‘극적’은 ‘극의 특성을 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③ ‘동적’은 ‘움직이는 성격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④ ‘미적’은 ‘사물의 아름다움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⑤ ‘사적’은 ‘개인에 관계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 (1) ○ (2) ×

(1)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 ‘일방향’은 어느 한쪽으로만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맥에서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상호 작용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정리

80~81쪽

학습내용 핵심 퀴즈

1 ⑤

2 ④

3 ②

4 ④

1 ⑤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활발하게 상호 작용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호 작용적 매체는 매체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하면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약화되었다.
- ②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정보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활발해졌다.
- ③ 책과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의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다.
- ④ 스마트폰 등장과 같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체 이용자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2 ④

상호 작용적 매체는 매체를 사용하여 소통할 때, 매체 이용자들 간에 쌍방향으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매체를 말한다. 개인 블로그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작용적 매체를 통해 매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② 상호 작용적 매체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③ 과거에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의 역할이 컸다면 상호 작용적 매체의 등장으로 이제 정보의 수용자가 직접 정보를 재가공하여 생산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 그 경계가 약화되었다.

⑤ 상호 작용적 매체는 이용 목적에 따라 공적 정보 및 사적 정보를 다룰 수 있다.

3 ②

블로그는 개인의 사적 정보를 다루는 매체로, 정보 자료를 생산할 때 이미지, 해시태그,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의 매체이다.

오답 해설

- ① 블로그에는 댓글 기능이 있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 ③ 학교 누리집은 주로 공적 정보를 다루는 매체이므로 사적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가 더 개방적인 소통 공간에 해당한다.
- ④ 블로그는 1인 미디어로 주로 개인의 생각, 의견 등 사적 정보를 다루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 ⑤ 블로그의 정보를 수용하는 이는 생산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④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다루는 정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② 다루는 정보에 신뢰할 수 없는 거짓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③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하려는 내용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⑤ 다루는 정보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 01 ② 02 ④ 03 ㉠ 일방향 ㉡ 쌍방향 04 ③
05 ② 06 매체 이용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07 ⑤

01 ②

(나)에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의 등장으로 많은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소수에게 전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급속 활자의 발명으로 직접 문자를 적어 소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다)에서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가)의 인쇄 매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고, (나)의 방송 매체 등장 시기에도 사람들이 정보를 일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제시되어 있다.
④ (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라)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거나 인간관계를 넓히는 등 상호 작용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02 ④

(다)와 (라)에서는 매체 이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작용적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오프라인보다 신뢰성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다)와 (라)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상호 작용 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는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등 상호 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② (다)와 (라)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다)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의 등장으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정보

를 생산, 공유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다), (라)에서와 같이 인터넷,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한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신중하게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03 ㉠ 일방향 ㉡ 쌍방향

(가)와 (나)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매체나 매체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와 (라)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③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05 ②

(가)는 공적 정보를 다루는 학교 누리집으로 매체 생산자는 학교 관계자이며, 수용자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다. 반면 (나)는 개인 블로그로 개인의 정서나 의견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공간이다. 따라서 (가)에 비해 (나)가 게시물을 이용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누리집, (나)는 개인 블로그로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③ (가)는 학교와 관련된 공적 정보의 공유에 초점을 둔 학교 누리집이다. 반면 (나)는 개인의 생각, 의견 등 사적 정보를 다루는 공간으로 학교 누리집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가)와 달리 (나)에는 게시물을 공유 및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는 생산자가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물의 내용 중 핵심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추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06 서술형 매체 이용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보기>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사

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유했던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공유하려는 정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며 신중하게 정보를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07 ⑤

<보기>에서 수용자는 생산자가 남긴 글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다시 올리고,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는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보를 생산할 때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재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다루고 있는 정보가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유의하며 정보를 다루어야 하며,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때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는 은호가 게시한 글을 다른 친구들이 재전송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생산한 글이 재생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호는 책을 읽고 난 뒤 인상 깊었던 구절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였다. 이처럼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개인의 생각, 의견 등 사적 정보를 다루는 개방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댓글의 기능 이외에도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게시글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는 이들로 볼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이 필요하다.

대단원 종합 문제

86~93쪽

- 01 ② 02 ⑤ 03 (가)에서는 '포도', (나)에서는 '웃는다'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토실토실', (나)에서는 '보슬보슬', '알롱알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④ 05 ① 06 '별'과 '꽃'은 화자처럼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07 ① 08 ② 09 ③ 10 직유법이 쓰였으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 11 ⑤ 12 ② 13 ①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19 ④ 20 ③ 21 ④ 22 ② 23 학교 누리집은 공적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공손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4 ⑤ 25 ③ 26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27 ④

01 ②

(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포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며 시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는 햇별이 나 있는 날 햇비가 내린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 모두 질문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서 길을 바라보며 길을 포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비유하여 묘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는 명령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는 2연에서 '다 같이 춤을 추자'라는 표현 등에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가)에서는 가정의 진술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도 추측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⑤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마음이 반대가 되도록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는 반어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해님이 웃는다'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고, '나 보고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라는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② ‘아씨처럼 나린다 / 보슬보슬 햇비’는 원래 ‘보슬보슬 햇비 아씨처럼 나린다’라는 문장인데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것이며, ‘맞아 주자 다 같이’도 ‘다 같이 맞아 주자’라는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③ ‘보슬보슬’과 ‘알롱알롱’은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로, ‘햇비’와 ‘무지개’를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④ 이 시는 한자어 대신에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

03 서술형 (가)에서는 ‘포도’, (나)에서는 ‘웃는다’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토실토실’, (나)에서는 ‘보슬보슬’, ‘알롱알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문장 형식과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조건>의 문장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의 문장 형식을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04 ④

<보기>는 의인법에 대한 설명이다. ‘웃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햇님’을 사람이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길’을 ‘포도 덩굴’에 비유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원관념)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보조 관념)을 동일시한 은유법에 해당한다.

② ‘같은’과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마을’을 ‘포도 송이’에 비유한 것으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③ 햇비가 내리는 모습을 ‘처럼’과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아씨’에 비유한 것으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⑤ ‘무지개’를 ‘하늘 다리’와 동일시하여 비유한 것으로 은유법에 해당한다.

05 ①

이 시는 ‘될 수 있을까’의 의문형 표현과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듯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의식이 변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에서는 수미상관 구조로 시행을 전개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에서는 자연물에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서술형 ‘별’과 ‘꽃’은 화자처럼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이 시에서 ‘별’은 외로워 쳐다보면 마음을 비취 주는 존재로, ‘꽃’은 세상일이 괴로울 때 화안히 안기어 웃어 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별’과 ‘꽃’은 위로를 주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07 ①

이 시의 1, 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의 의문형 표현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후 3, 4연에서는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단정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할 뿐,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마음 어두운 깊은 밤’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떠나는 것들에 대한 슬픔이 그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

④ 화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별’과 ‘꽃’처럼 따뜻한 위로의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며, 자신을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자 한다.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해 줄 대상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②

㉠ 화자는 ‘별’과 ‘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망을 고백하듯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하였을 때 배경 음악으로는 차분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화자는 ‘별’을 바라보며 자신도 별처럼 누군가를 위로해 주

고 길을 비추어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따라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 ㉠ 들꽃은 하얗고 평범한 존재로, 화려한 들꽃이 핀 장소를 배경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시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나타나 있긴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떨어지는 모습은 시에서 묘사되는 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09 ③

(가)에서는 ‘포도’의 반복을 통해, (나)에서는 ‘있을까’, ‘갖고 싶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나’로 표면에 직접 드러난다.
- ② (가)와 (나) 모두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달리 (나)에서는 1연의 ‘외로워’, 2연의 ‘괴로워 쓸쓸히’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에서는 1연과 2연의 마지막 행에서 ‘될 수 있을까’의 의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0 서술형 직유법이 쓰였으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

(가)에서는 2연의 ‘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에서 직유법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1연의 1행에서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직유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법을 활용하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어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비유법의 종류는 바르게 썼으나 그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직유법이라는 용어만 쓴 경우	1

11 ⑤

〈보기〉는 줄글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기〉를 (가)로 바꾸어 표현하였을 때는 동일 시어 또는 소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느껴

짐을 알 수 있다. (가)와 같이 나타내면 시의 음악성을 나타낼 수 있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시의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시에서 말하는 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운율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②

도치법은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길, (포도) 덩굴, 마을, 포도알’ 등을 통해 ‘ㄹ’ 소리가, ‘땅덩이, 덩굴, 포도송이’를 통해 ‘ㅇ’ 소리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4연에서 가을과 봄을 줄여 ‘갈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드러운 운율감을 주고 있다.
- ④ 5연에서 ‘토실토실’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두 개의 사물을 직접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직유법에 해당된다. 2연에서 ‘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의 시구를 통해 직유법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①

㉠에 쓰인 표현 기법은 은유법이다. 은유법은 이어 주는 말 없이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에서 원관념은 ‘길’이며, 보조 관념은 ‘포도 덩굴’이다. ㉠에서도 이어 주는 말 없이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②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는 표현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③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는 표현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④ ‘~에 사라지고 ~에 사라진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 ⑤ 이별을 견뎌야만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14 ②

‘덩굴’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는 길을 의미한다. (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직유법을 활용하여 ‘마을’이 길 위에 형성된 모습을 ‘포도

송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며 외로움을 달래 주는 별과 같이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다.

④ '하얀 들꽃'은 상대방을 위해 눈물짓듯 웃어 주는 따뜻한 존재이다. 따라서 '될 수 있을까'의 의문형 표현을 통해 하얀 들꽃처럼 순수하고 평범하면서도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음을 '어두운 밤'에 비유한 것을 통해 화자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②

이 글은 '파랑새'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티틸과 미틸 남매는 파랑새를 찾는 여정을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꿈을 매개로 남매가 행복의 나라에 방문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장면의 교차를 통한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 1인칭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서술하는 3인칭 서술자이다.

⑤ 꿈을 통해 방문하게 되는 행복의 나라는 환상적 세계이지만 꿈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현실 세계와 비교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온 뒤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타난다.

16 ⑤

티틸은 여자아이가 안고 있던 파랑새가 날아가자 위로하며 또 찾아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파랑새를 다시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꿈을 꾸지만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행복의 나라들을 방문해도 찾지 못한다.

② 요술쟁이 할머니는 남매에게 아픈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는 앞부분의 줄거리에 제시되어 있다.

③ 행복의 나라에서 엄마를 닮은 아름다운 부인이 '엄마의 행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려 준다.

④ 행복의 나라에서 만난 아이들은 남매에게 '맑은 공기의 행복',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 '봄의 행복' 등 행복의 종류가 다양함을 대화를 통해 알려 준다.

17 ②

행복의 나라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티틸과 미틸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

오답 해설

① 티틸과 미틸은 행복의 나라를 방문한 후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복의 나라는 비현실적 공간이지만 티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마주하지는 못한다.

④ 행복의 나라는 티틸과 미틸이 마주하는 새로운 상황을 보여 주지만 남매의 긴장이 해소됨을 보여 주지 않는다. 또한 행복의 나라를 방문하기 이전에 티틸과 미틸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티틸과 미틸은 행복의 나라에서 계속 파랑새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남매가 할머니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서술형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남매는 행복의 나라에서 자신의 집에 다양한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과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남매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파랑새가 집에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은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5
파랑새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썼으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행복'이라는 말만 쓴 경우	1

19 ④

(라)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작용 하는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인 정보 위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인쇄 매체 시대에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정보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다)에서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나)에서 라디오, 텔레비전의 시대에 정보가 사람들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다)에서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20 ③

(라)에서 이동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서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생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라디오, 텔레비전의 시대에도 가능하였다.

④ 정보가 대량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시기는 인쇄 매체의 등장 시기에 나타난 변화이다.

⑤ 영상 매체를 활용한 정보 교환은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가능하게 된 변화이다.

21 ④

(가)는 누리집, (나)는 블로그로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오답 해설

①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된다.

② (가)에서만 정보의 생산자가 게시물에 문서를 첨부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공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매체는 (가)이다.

⑤ (가)는 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달한다.

22 ②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 수용자에게 학교 생활에 관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 ㉡과 같은 공적 정보를 다루는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은 사적인 내용으로 전체 학교 관계자와 공유하기에 적절

하지 않다. ㉣은 특정 학급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공적 정보로 보기 어렵다.

23 서술형 학교 누리집은 공적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공손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 누리집은 주로 공적 정보를 주고받으며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 등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다. <보기>의 승아처럼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조건>의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24 ⑤

개인 블로그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공유한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공유하려는 정보가 개인 정보는 아닌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5 ③

(가)~(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조회 수 확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였는지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수용자는 게시된 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매체 생산자 역시 수용자들 반응을 확인하며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매체 생산자는 자신의 올린 정보의 핵심 내용을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노출할 수 있다.

④ 매체 생산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공유를 통해 다른 매체에 또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정보 전달 이외에도 개인의 생각, 의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26 서술형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쉽게 공유하면서 허위 정보 유통,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며 정보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27 ④

〈보기〉에서는 해시태그가 검색의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다)를 살펴보면 생산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재전송되면서 관련 해시태그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어린 왕자’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왕자’의 해시태그 검색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공유하려고 할 때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은 〈보기〉와 ㉠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② 〈보기〉에서 해시태그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에서 생산자는 게시물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개 이상의 해시태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⑤ (가)~(다)에서 개인이 올린 정보가 공유 및 재생산되어 해시태그가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간추리고 쓰기

(1) 요약하며 읽기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98~107쪽

- | | | | | |
|------|------|------|------|------|
| 1 ⑤ | 2 ③ | 3 ⑤ | 4 ① | 5 ⑤ |
| 6 ⑤ | 7 ① | 8 ⑤ | 9 ⑤ | 10 ② |
| 11 ② | 12 ② | 13 ③ | 14 ④ | |

1 ⑤

글을 읽는 목적과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요약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효과적인 요약을 위해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첫 번째 문단 또는 마지막 문단만을 요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이나 정서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④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므로 되도록 많은 내용을 포함하려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줄이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2 ③

이 글의 주제는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이다.

3 ⑤

은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고 글의 구조에 따라 ‘처음-중간-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4 ①

이 글은 시드볼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은 기사문과 같은 글에서 사건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 글은 사건이 아닌, 시드볼트라는 특정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

③ 주장과 근거가 뚜렷한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글쓴이의 의견과 논리를 포함하지만, 이 글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상징적인 표현은 주로 문학 작품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

에서 쓰인다. 이 글은 시드볼트와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중심의 글로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글은 시드볼트와 관련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설명문이므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이나 교훈이 담긴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⑤

3, 4문단에서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6 ⑤

시드볼트는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로 정말 위급한 재난 상황이나 종자가 멸종한 것이 아니라면 보관한 종자를 밖으로 꺼낼 수 없다. 반면 시드뱅크는 종자를 보관했다가 종자의 연구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둘은 운영 방식이 다르다.

7 ①

시드볼트에 종자를 보관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필요한 종자와 함께 섞여 있는 나뭇가지나 과육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8 ⑤

이 글은 시드볼트를 소재로 하여 시드볼트의 특징, 역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드뱅크에 저장된 종자들의 수’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고 이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요약에 포함할 내용으로 볼 수 없다.

9 ⑤

글을 요약할 때는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적절히 삭제하여 글의 중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글의 구조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구조도를 활용하여 글을 요약하면 글의 중심 내용과 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④ 이 글의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를 비교·대조하고 있다.

10 ②

같은 글을 읽더라도 읽기 목적이 다르면 글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요약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1 ②

시드볼트에서 종자를 보관할 때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자

의 수분을 낮추는 과정을 거치고,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한 뒤 블랙 박스에 밀봉하여 영하 20℃의 보관소에 저장한다.

12 ②

이 글은 꿀벌 보호를 위해 국가와 개인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꿀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세계 꿀벌의 날’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글의 주된 목적은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데 있다.
- ③ 이 글에서는 꿀벌의 종류가 아니라 꿀벌 멸종 위기의 원인과 보호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 ④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적은 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꿀벌 보호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다.
- ⑤ 이 글에는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 드러나 있으며, 이 글은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③

꿀벌이 온도에 민감한 동물이라고 하였으나, 꿀벌이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기온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14 ④

요약문을 쓸 때는 문단별 중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처럼’ 등과 같은 말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어 쓰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①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다.
- ② 읽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간추릴 수 있다.
- ③ 글의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는 요약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⑤ 요약하기는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108~113쪽

- | | | | | |
|-----|-----|-----|-----|-----|
| 1 ④ | 2 ③ | 3 ④ | 4 ③ | 5 ⑤ |
| 6 ④ | 7 ② | 8 ⑤ | 9 ⑤ | |

1 ④

교과서를 읽는 주된 목적은 공부할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감동을 얻는 것은 문학 작품 등을 읽을 때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교과서 읽기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 ② 심미적인 체험은 주로 예술 작품 감상에서 찾는 가치로, 교과서 읽기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다.
- ③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목적은 교과서 읽기의 본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교과서 읽기의 주된 목적은 학습 내용을 익히는 것이다.
- 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교과서 읽기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2 ③

교과서를 읽는 목적은 공부할 내용을 익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읽고 느낀 점보다는 교과서에 담긴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④

올바른 독서 습관에는 흥미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읽는 자기 주도적 독서가 포함된다. 이는 독서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해설

- ① 학습에 필요한 책만 읽으면 독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독서 습관을 넓히고 균형 잡힌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책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추론하거나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피하면 독서 수준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적절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⑤ 줄거리 요약만으로는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책 전체의 내용을 읽으며 여러 맥락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4 ③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은 도서 선정의 주된 기준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도서를 선정할 때,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어려운 책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쉬운 책은 흥미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읽기 목적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면 독서의 효과가 높아진다.

④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있는 책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용의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독서는 독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할 때 더 효과적이고 즐거운 활동이 된다.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면 독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5 ⑤

주제가 비슷한 다른 도서는 독서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독서가 끝난 뒤 독서를 확장하는 독후 활동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오답 해설

① 독서 계획에는 책을 읽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간을 설정하면 독서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② 독서에 할애할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계획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읽을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꾸준히 독서를 이어갈 수 있다.

③ 독서 계획에서 매일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읽을 분량을 정해 두면 독서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분량을 설정하면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④ 독서 목적을 설정하면 책을 읽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독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목적이 명확할수록 독서 활동이 의미 있게 진행된다.

6 ④

독서 목적 설정은 책을 읽기 전에 하는 활동으로, 독서를 마친 후의 독후 활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7 ②

독서 일지는 주로 책을 읽고 주요 내용이나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책을 읽은 날 겪은 일과 같이 독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독서 일지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독서 일지에는 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책의 핵심을 되새기고 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③ 독서 일지에 읽은 날짜와 부분을 기록하면 독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④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까닭을 기록하면 독

서 경험을 더 깊이 있게 되새길 수 있다.

⑤ 책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적으면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8 ⑤

해시태그는 전체 줄거리와 같은 긴 내용은 담기 적절하지 않다.

9 ⑤

친구들과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감상을 나누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나 생각을 비교하며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친구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활동은 주로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책을 빠르게 읽는 능력은 요약하며 감상 나누기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다. 이 활동은 속도보다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③ 독서 활동이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시험 성적 향상은 이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활동은 독서 일지의 공유가 아니라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의견을 비교하는 것이다.

마무리 어휘 학습

115쪽

1 (1) ○ (2) × (3) ○

2 (1) 멸종하고 (2) 복원하려면

1 (1) ○ (2) × (3) ○

(1) ‘예측하다’는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의 의미이다.

(2)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림.’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살포’이다. ‘횡포’는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을 의미한다.

(3) ‘부과하다’는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2 (1) 멸종하고 (2) 복원하려면

(1) ‘멸종하다’는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다.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리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므로, 문맥상 ‘멸종하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멸망하다’는 ‘망하여 없어지다.’의 의미이다.

(2) ‘복원하다’는 ‘원래대로 회복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므로, 문맥상 ‘복원하려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선별하다’는 ‘가려서 따로 나누다.’의 의미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116~117쪽

학습내용 핵심 **꼭!**

1 ④ 2 ① 3 ② 4 ②

1 ④

㉠: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요약은 읽기 목적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글의 구조를 시각화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각화가 내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2 ①

<보기>는 주어진 내용 중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하여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구조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 덜 중요한 내용이 드러난 문장을 선택하는 것은 요약의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할 때는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없으면 중요한 내용을 종합하여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는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하였다.

⑤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요약의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할 때 구체적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라면, 그 단어를 묶어 주는 말로 일반화할 수 있다.

3 ②

글을 요약할 때는 읽기 목적,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을 위한 글은 핵심 단어 위주로 요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줄글 형식의 요약문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②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이 나타난 것은 ②이다. ②에는 ‘북극은 바다라서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에 원인,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 살아가고 있다.’에 결과가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시드볼트의 뜻을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시드볼트와 시드뱅크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꿀벌의 멸종을 막는 실천 방안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118~119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① 06 ②

07 유담이와 인표의 읽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01 ②

이 글은 주로 시드볼트에 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시드뱅크의 역사와 발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요약할 때 핵심어를 찾아 글의 설명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간추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③ (다), (라)에서 시드볼트와 시드뱅크의 역할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두 시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의 주요 정보와 세부 정보를 구분하고, 덜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요약하는 것은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어 적절한 방법이다.

02 ⑤

(마)에서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시드볼트의 위치와 각각 저장하는 종자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03 ⑤

(다)와 (라)에서는 시드볼트와 시드뱅크의 역할과 기능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조가 주된 내용 전개 방식이다.

오답 해설

① 예시는 개념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②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③ 정의는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 설명하는 방식이다.

④ 분류·구분은 특정 기준에 따라 여러 대상을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04 ②

문단의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은 ㉠이다.

05 ①

(가)는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꽃이 사라졌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②

이 글은 논설문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가 제시되는 (가)는 서론,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과 국가적인 해결 노력이 제시된 (나), (다), (라)는 본론,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마)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7 서술형

유담이와 인표의 읽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담이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을 중심으로 요약할 것이고, 인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요약할 것이기 때문

에 요약 내용이 다를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읽기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 때문이다.’의 문장 형식을 정확히 사용한 경우	5
읽기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 때문이다.’의 문장 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122~129쪽

- 1 ⑤ 2 ④, ⑤ 3 ② 4 ③ 5 ④, ⑤
6 ④ 7 ④ 8 2문단의 중심 내용인 ‘탈춤의 뜻과 종류’와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9 ④
10 ⑤ 11 ⑤

1 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의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설명 대상, 예상 독자, 글의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해설

① 글의 유형에 따라 쓰기 방법과 구조가 달라지므로, 어떤 유형의 글을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글의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③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 글의 핵심 내용을 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④ 예상 독자는 글을 읽을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관심사와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글을 계획해야 한다. 독자를 고려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므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다.

2 ④, ⑤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내용이 알차고 풍부한 글을 쓸 수 있고, 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민규와 동아리 친구들이 쓰려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민규와 동아리 친구들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미 설명 대상을 우리나라 탈춤으로 정했기 때문에 설명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민규와 동아리 친구들이 쓰려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②

정윤이는 인터넷 매체인 방송사 누리집과 국가유산 관련 블로그를 통해 탈춤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4 ③

- ㉠는 ‘국가유산청 블로그’라고 출처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로 출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5 ④, ⑤

수집한 정보를 선별할 때 다른 글에서 사용된 적 없는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6 ④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일관된 내용을 전달하고,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글쓰기에 효율적이다. 개요 작성 자체가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글을 작성하고 고치는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에 활용할 자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③ 개요를 작성하면 주제에 맞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⑤ 개요 작성 과정에서 조직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7 ④

이 글은 우리나라 탈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하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8 2문단의 중심 내용인 ‘탈춤의 뜻과 종류’와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글의 내용을 고쳐 쓸 때에는 각 문장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2문단에서는 탈춤의 뜻과 종류를 설명하고 있지만, ㉠은 이와 관련이 없는 탈춤 안내 책자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

9 ④

㉣도 고쳐 쓸 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글에서는 적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0 ⑤

이 글에서 탈춤을 향한 대중의 비판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탈춤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탈춤의 지역별 이름과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탈춤의 공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1문단을 통해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수집한 자료 중에서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활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②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 ③ 글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④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130~133 쪽

1 ④ 2 ③ 3 ① 4 ④, ⑤ 5 ⑤

1 ④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유형으로는 설명문, 보고문, 안내문, 기사문 등이 있다. 건의문은 설득하는 글에 해당한다.

2 ③

글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선별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3 ①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글에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오답 해설

② 개요를 작성할 때는 글의 제목도 정한다.

③ 매체 자료는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개요를 작성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④ 수집한 정보 중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구성해야 한다.

⑤ 글을 마무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끝부분에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글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다.

4 ④, 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설명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고, 문자 언어, 그림, 사진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마무리 어휘 학습

135쪽

1 (1) 정체성 (2) 부조리 2 (1) 체험하다 (2) 선별하다 (3) 능동적

1 (1) 정체성 (2) 부조리

(1)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 단어므로, 문맥상 ‘정체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부조리’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므로, 문맥상 ‘부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1) 체험하다 (2) 선별하다 (3) 능동적

(1) ‘체험하다’는 ‘자기가 몸소 겪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2) ‘선별하다’는 ‘가려서 따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3) ‘능동적’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136~137쪽

학습내용 핵심 꼭!

1 ①

2 ①

3 ⑤

4 ⑤

1 ①

㉠: 설명문, 보고문, 안내문, 기사문은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해당한다.

㉡: 출처를 밝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쓰기 윤리를 꼭 지켜야 한다.

㉢: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때에도,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써 전달하는 것이 좋다.

㉤: 글의 내용이 과도하게 방대해지면 오히려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문장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③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자료의 출처는 정확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⑤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3 ⑤

글의 예상 독자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한다.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고 고쳐쓴다.

오답 해설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주제, 유형, 예상 독자,

설명 대상 등을 생각하여 정리한다.

②, ③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정보를 선별한다.

④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앞에서 선별한 정보 중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나중에 쓸지 정하며 개요를 작성한다.

4 ⑤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여러 개 있다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것을 선택하거나, 각각의 자료에서 사용할 정보를 골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138~139쪽

01 ⑤ 02 ① 03 <보기>의 자료를 통해 탈춤의 공연 방식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있는 ‘중간 2’에서 활용하기 적절하다. 04 ② 05 ⑤ 06 ③

01 ⑤

정운이는 방송사 누리집, 국가유산 관련 블로그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출처가 분명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① 재우는 책에서 탈춤의 뜻과 종류를 찾아보았다고 하였다.
- ② 정운이는 정보를 수집하며 탈춤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 ③ 예림이는 글을 올릴 매체가 학교 누리집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 ④ 민규는 신문 기사를 통해 최근에 있었던 탈춤 공연과 축제 소식을 찾아보았다.

02 ①

제목은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② 처음 부분에는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소식을 전해서 독자의 관심을 끈다.
- ③ 글의 중간 부분에는 전달하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중간 1’은 탈춤의 뜻과 종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탈춤의 공연 비용은 이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끝부분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인 탈춤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03 서술형 <보기>의 자료를 통해 탈춤의 공연 방식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있는 ‘중간 2’에서 활용하기 적절하다.

<보기>는 탈춤의 공연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출처를 신뢰할 수 있고 글의 주제와도 맞으므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나)의 개요에서는 탈춤의 공연 방식과 특징을 설명하는 ‘중간 2’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활용 방안을 모두 <조건>에 맞게 쓴 경우	5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활용 방안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

04 ②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오답 해설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비유와 상징은 주로 문학적인 글을 쓸 때 사용된다.
- ③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명확한 마무리를 통해 독자가 정보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④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복잡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 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체계적인 구조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독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05 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야 정보를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다. 매체의 종류를 한 가지로 제한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③

<보기>의 자료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탈춤 공연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 자료와 실제 탈춤 공연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이다. 따라서 탈춤 공연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01 ⑤ 02 ④ 03 북극은 바다라서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이 산다.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④ 09 종자를 4°C 정도의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한다. 10 ⑤ 11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②
16 ④ 17 ③ 18 ⑤ 19 ② 20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1 ④ 22 ④ 23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4 ② 25 (1) 뜨거운(큰) 관심을 받았다. (2) 독자를 고려하여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26 ③ 27 ①

01 ⑤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을 설명하는 글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두 지역의 서로 다른 기후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비교·대조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기온이라는 객관적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02 ④

이 글은 중간 부분에서 남극과 북극의 기후 차이를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D에는 ‘기후의 차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북극은 바다라서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이 산다.

‘그러나’ 뒤에 들어갈 내용이므로 앞의 문장과 관련 지어 대조되는 내용을 써야 한다. 앞의 문장에서 남극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빈칸에는 이와 대조되는 북극의 특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배점
남극과 대조되는 북극에 대한 설명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남극과 대조되는 북극에 대한 설명을 썼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북극은 따뜻하다.’와 같이 일부 내용만 서술한 경우	1

04 ⑤

남극과 북극의 얼음층은 지구의 기록을 담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이다.

05 ②

(다)를 통해 시드볼트가 아닌 시드뱅크가 전 세계적으로 1,700여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다)와 (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06 ②

<보기>에서는 (가)의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하였다.

07 ⑤

⑦은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도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어서’는 원인이고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는 결과이므로 인과가 나타나 있다.
② 작물 종자를 ‘밀, 벼, 옥수수, 감자, 콩’과 같이 예시를 들고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③ 종자 보관 시설을 시드볼트와 시드뱅크로 구분하였다.
④ 극지방의 뜻을 정의하였다.

08 ④

인류의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인 곳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의 시드볼트이다.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려고 주로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

09 **서술형** 종자를 4°C 정도의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한다. (나)에 제시된 시드볼트에서 종자를 보관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본다.

평가 기준	배점
종자를 4°C 정도의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한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종자를 저온에 적응하도록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저온’, ‘처리’ 등의 단어만 포함하여 쓴 경우	1

10 ⑤

시드볼트는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여 식물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밖으로 나와 꽃을 피

우는 것은 식물이 멸종하거나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의미
이므로, ㉠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11 ㉠

(다)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
서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이 꿀벌의 멸종
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라)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2 ㉠

수지의 읽기 목적은 사라져 가는 곤충에는 어떤 것이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
은 목적에 따라 요약할 내용은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한 원
인과 해결 방안’이 적절하다.

13 ㉠

(가), (나)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
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다)에는 그 원인이 제시되어 있
으므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말은 ‘그렇다면’이 적절하다.

14 ㉠

흥미로운 사건보다는 학습을 위한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5 ㉠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것은 상법이다.

오답 해설

- 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③ 민법은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에 관해 규율하며, 재
산권과 계약, 혼인과 이혼, 상속, 유언 등을 다룬다.
- ④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
치 조직 및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을 담고 있다.
- ⑤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 ㉠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법인 공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으므로, ㉠에는 ‘개인 생활과 관련된 사법’과 대응되는 형태로
‘국가 생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7 ㉠

(가)에서 전통문화 동아리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쓰고자 하
는 글의 주제는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임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 탈춤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룰 수는 있지만 글의 주제로 보기는 어렵다.

18 ㉠

민규는 신문 기사에서 정보를 찾았다고 하였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재우는 인쇄 매체인 책에서 정보를 찾았다.
- ②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드러나므로 (나)는 ‘내용 생성하
기’ 단계에서 나눈 대화이다.
- ③ 정운이는 탈춤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찾았으므로 글의 주
제와 관련된 정보이다.
- ④ 예림이는 탈춤에 대해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자료를 찾았다.

19 ㉠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으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글
을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여러 자료를 활용하면 정보를 찾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
으나 그만큼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③ 비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정보
를 전달하는 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 ④ 여러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⑤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얻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20 서술형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는 탈춤과 관련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동아리 친구들이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평가 기준	배점
자료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자료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바르게 썼으나 <조건>에 맞 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	3
‘주제’라는 단어는 포함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 우	1

21 ④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탈춤의 뜻, 종류, 공연 방식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글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은 글의 ‘끝’ 부분이다.

22 ④

문단 안의 문장은 각각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 문단에서 모든 문장이 중심 내용을 담고 있을 필요는 없다.

23 **서술형**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의 자료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글로, 정확한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아 글에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배점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3
‘출처’라는 단어는 포함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24 ②

지도에는 지역별 탈춤의 이름이 나타나 있으므로 〈보기〉는 지역별 탈춤의 이름이 다르다고 설명한 (나)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5 **서술형** (1) 뜨거운 (큰) 관심을 받았다.

(2) 독자를 고려하여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중학생 독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표현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고쳐 쓴 내용과 고쳐 쓴 이유를 모두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5
고쳐 쓴 내용과 고쳐 쓴 이유 중 한 가지만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3

26 ③

㉠은 앞뒤 문맥에 맞게 ‘남녀 불평등’으로 수정해야 하므로 잘못 쓰인 표현에 해당한다.

27 ①

(나)에서는 탈춤의 뜻과 종류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 ㉡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탈과 탈춤에 관한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어 삭제해야 한다.

3. 능동적인 언어생활

(1) 추론하며 듣기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154~161 쪽

- 1 ⑤ 2 ① 3 ② 4 ④ 5 학생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6 ②
7 ③ 8 ⑤ 9 ⑤ 10 ② 11 ②
12 ④

1 ⑤

가 는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놀라운 마음을 표현하고 칭찬하기 위하여 한 말이다. 나 는 수첩을 더럽힌 동생을 나무라기 위하여 한 말이다.

2 ①

아빠의 찡그린 표정이나 ‘너무 크지 않니?’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 텔레비전 소리에 대한 아빠의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할 수 있다. 아빠의 의도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니 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후 정민이가 할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소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3 ②

화자의 복장이 말하려는 의도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화에서는 아빠의 복장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를 추론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그림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화 시 아빠의 말투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을 고려하여 아빠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③ 찡그린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큰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추론해야 한다.
④ ‘너무 크지 않니?’라는 표현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아빠의 생각을 추론해야 한다.
⑤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해야 한다.

4 ④

학생은 할머니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추론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세대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예로 볼 수 없다.
② 대화가 오후에 이루어진 것이 학생의 대답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③ 버스 정류장 앞이라는 장소를 고려한다면 할머니가 학생에게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의도로 말을 건넨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설명하기 어려워서였다면 그런 상황임을 함께 언급했어야 한다.

5 학생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묻은 것인데 학생은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이다.

6 ②

할머니의 의도는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므로,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답변을 기대할 것이다.

7 ③

이 대화에서 할머니의 성별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비언어적 표현인 할머니의 힘들어하는 표정과 땀을 닦는 모습, 언어적 표현인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문장과 버스 정류장 앞이라는 상황 맥락을 통해 할머니가 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8 ⑤

뉴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표현과 제시된 자료 등에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숨겨져 있으므로 상황 맥락, 사용한 표현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기자가 어떤 의도로 내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뉴스를 보아야 한다.
② 뉴스는 일어난 일을 전달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③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담화이므로, 제시한 자료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④ 주제에 대해 기자가 어떤 관점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9 ⑤

글을 아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수어 설명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글을 아예 모르는 청각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영상 해설사가 시각 장애인을 위해 고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영상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시각 장애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③ ‘국가유산청은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을 점점 더 늘려 갈 계획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아직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10 ②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통해 그 효과와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 ③ 장면 해설 서비스의 불편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각기 다른 장면 해설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각 장애인 1명과 청각 장애인 1명의 인터뷰만 제시하였다.
- 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②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한 긍정적인 표현과 인터뷰, 관점 등을 볼 때 이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장면 해설 서비스가 시행되는 곳이 한정적이라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이것이 기자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중심 내용은 아니다.
- ③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장면 해설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고궁 관람 방법 중 장애인들이 좀 더 생생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면 해설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 고궁 관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기 위하여 보도한 뉴스는 아니다.

⑤ 장면 해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점은 뉴스에 나타나지 않는다.

12 ④

추론하며 들을 때에도 화자의 생각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표현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 ⑤ 숨은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화자의 말을 표면적 의미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162~165 쪽

- 1 ① 2 ② 3 ④ 4 ① 5 ①
 6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 현재에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하려고

1 ①

이와 같은 말하기는 연설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드러내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이 연설의 화자는 교육자들이 모든 이에게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⑤ 화자는 언제 꿈을 이룰 것인지, 나중에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화자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은 청소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3 ④

화자는 미래에 관해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에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미래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드러난다.
- ②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드러난다.

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드러난다.

4 ①

연설의 길이를 파악하는 것은 화자의 목적을 추론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통해 문제에 관해 화자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무엇을 중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든다. 따라서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화자가 해당 문제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④, ⑤ 연설의 화자, 청자, 연설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연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5 ①

〈보기〉에서는 연설의 청자(교육자들), 연설이 이루어지는 장소(교육 기업에서 개최한 행사장)와 같은 상황 맥락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였다.

6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 현재에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하려고

달라이 라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돈을 희생하며, 미래에 관해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즐길 생각은 하지 않는 이상한 존재라고 말하였다. 화자는 현재의 삶이 중요하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달라이 라마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마무리 어휘 학습

167쪽

1 (1) 추론 (2) 연설 2 (1) ○ (2) ○

1 (1) 추론 (2) 연설

(1)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고 원인을 미루어 생각한다는 의미이므로 '추론'이 적절하다. '추론'은 '미루어 생각하여 논함'을 뜻하고, '추구'는 '목적에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함'을 뜻한다.
(2) 밀집한 군중, 즉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연설'이 적절하다.

2 (1) ○ (2) ○

(1) 의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을 뜻한다.

(2)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한다.

소단원 핵심 정리

168~169쪽

학습 내용 핵심 꼭!

1 ① 2 ③ 3 ② 4 ② 5 ⑤

1 ①

영업 종료 10분 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인의 말 속에 주문이 어려우니 식당을 지금 이용할 수 없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식당 주인은 영업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자주 이용해 달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식당 주인은 영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많이 주문해 달라는 뜻으로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시간이라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⑤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숨겨진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2 ③

아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과 아빠가 사용한 표현을 고려해야 한다. 아빠의 텔레비전 시청 취향은 〈보기〉에 나타난 말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상황 맥락을 고려한 생각이다.

②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한 생각이다.

④ 준언어적 표현을 고려한 생각이다.

⑤ 언어적 표현을 고려한 생각이다.

3 ②

선주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 자신의 머리가 어떤지 묻는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꽤찮아.'라는 말은 머리 모양이 어울린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면 ‘기운 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음식 같은 것들을 권할 때 ‘괜찮아.’라고 말하면 ‘난 사양할 게.’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상태를 물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하면 ‘아무렇지 않아.’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⑤ 기분을 물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 ②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친절한 설명’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⑤

연설에 사용된 표현을 근거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지, 얼마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는가는 화자의 의도를 찾는 것과 관련이 없다.

소단원 핵심 문제

170~171쪽

- 01 ① 02 ① 03** a 아빠의 찡그린 표정 b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04 ④ 05 ⑤**
06 시청자에게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알리려고 한다. **07 ③ 08** 어린이의 삶이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01 ①

의도를 전달할 때에는 화자, 청자, 시간 및 장소, 전달 내용 등 상황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

오답 해설

- ② 일상 대화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숨은 의미도 추론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똑같은 말이라도 숨겨진 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추론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담화의 상황 맥락을 비롯하여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 ⑤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살펴봐야 화자의 의도, 관점 등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

02 ①

(가)는 화자가 그림을 잘 그린 친구에게 놀라움을 표현하고 칭찬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고, (나)는 화자가 동생을 야단치려는 의도로 한 말이다. 이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①이다.

03 서술형 a 아빠의 찡그린 표정 b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담화의 상황과 관련된 화자, 청자, 전달 내용과 주제 등 담화의 상황 맥락은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표정, 몸짓 등이 있는데 (다)에서는 아빠의 찡그린 표정에서 텔레비전 소리에 대한 아빠의 부정적 감정이 드러난다. 아빠가 사용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아빠는 딸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일 것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a, b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5
a, b의 내용을 바르게 썼으나 b를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
a만 바르게 쓴 경우	1

04 ④

학생은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언어적 표현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땀을 닦으며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고려하지 않았다.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고려했다면 할머니의 말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학생은 할머니 말의 표면적 의미만 해석하여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본인이 안다는 대답만 한 것이다.
 ②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 아파트에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③ 할머니는 ○○ 아파트에 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상의 대화에서도 전하려는 의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⑤ 상황 맥락과 표현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05 ⑤

‘아직 극히 일부’라는 표현은 장면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유산이 아직 많지 않은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가 장애인들이 국가유산을 즐기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흔히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인터뷰에는 영상 해설이나 스마트폰 수어 설명에 대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효과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고궁 방문이 적합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고궁 나들이가 어려움을 밝히며,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해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고궁.’에서 ‘귀로 보고’는 시각 장애인들이 고궁을 즐길 수 있게 돕는 영상 해설 서비스를, ‘눈으로 듣는’은 청각 장애인들이 고궁을 즐길 수 있게 돕는 스마트폰 수어 설명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장면 해설 서비스가 장애인들이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을 통해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06 서술형 시청자에게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알리려고 한다.
뉴스에서 기자는 4대 고궁에서 ‘장면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장애인들에게 활용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알리려 한다는 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과 가치를 알리려 한다는 점 중 한 가지만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3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과 가치를 알리려 한다는 점 중 한 가지만 쓰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7 ③

나머지는 현재를 중요시하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지만, ㉠에는 이러한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는다.

08 서술형 어린이의 삶이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설의 화자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서 아이들이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설득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화자의 의도를 바르게 추론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화자의 의도는 바르게 썼으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174~189쪽

- 1 ③ 2 형태 3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준다.
- 4 ③ 5 ④ 6 ④ 7 ② 8 청춘, 눈
- 9 분식집 10 ③ 11 ① 12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3 ① 14 그곳, 새벽, 토끼, 물, 웅달샘, 하나
- 15 ⑤ 16 ⑤ 17 ⑤ 18 늦다, 보다, 찌푸리다
- 19 ① 20 ② 21 ⑤ 22 ① 23 ②
- 24 관형사 25 ① 26 ⑤ 27 ② 28 ④
- 29 ⑤ 30 ④ 31 앓, 그래

1 ③

‘밝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밝아, 밝으니, 밝고, 밝는, 밝지’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2 형태

‘앉다(앉아, 앉으니, 앉고)’, ‘받다(받아, 받으니, 받는)’, ‘뜨겁다(뜨거워, 뜨거우니)’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한편 ‘엄마’, ‘오직’, ‘으악’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3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준다.

‘옛’은 ‘추억’을, ‘자꾸’는 ‘떠오른다’를 꾸며 준다.

4 ③

‘던지다’, ‘걸다’, ‘오다’는 모두 문장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5 ④

‘밤’, ‘평화’, ‘의자’, ‘사물함’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무겁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6 ④

〈보기〉에서 ‘무척’은 ‘예뻐서’를 꾸며 주고, ‘한참’은 ‘보았다’를 꾸며 준다.

7 ②

‘예의’, ‘활력’, ‘생각’, ‘사랑’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낙엽’은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8 청춘, 눈

‘청춘’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고, ‘눈’은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9 분식집

〈보기〉에서 ‘거기’는 ‘분식집’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10 ③

‘이것’, ‘저것’, ‘그것’과 같은 단어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② ‘가방’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④, ⑤ ‘거기’, ‘이곳’은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11 ①

‘둘째’, ‘셋째’, ‘하나’, ‘둘’은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오답 해설

②는 동사, ③은 수식언(관형사, 부사), ④는 형용사, ⑤는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12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13 ①

〈보기〉는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오고’는 ‘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 ②, ③ ‘축제’, ‘컴퓨터’는 명사이다.
- ④ ‘자네’는 대명사이다.
- ⑤ ‘하나’는 수사이다.

14 그곳, 새벽, 토끼, 물, 웅달샘, 하나

‘그곳’은 대명사, ‘새벽’, ‘토끼’, ‘물’, ‘웅달샘’은 명사, ‘하나’는 수사이다.

15 ⑤

‘그립다’, ‘죄송하다’, ‘뻗뻗하다’는 모두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16 ⑤

⑦~⑨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⑩은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7 ⑤

‘곶다’와 ‘자르다’는 모두 용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것은 체언이다.

오답 해설

- ① ‘곶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② ‘자르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 ③ ‘곶다, 곶으니, 곶아서’, ‘자르다, 자르면, 자르지만’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 ④ 형용사와 동사는 모두 용언으로 주로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18 늦다, 보다, 찌푸리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이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며, 어간에 ‘-다’를 붙인 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늦었다’, ‘보며’, ‘찌푸렸다’이고 기본형은 각각 ‘늦다’, ‘보다’, ‘찌푸리다’이다.

19 ①

‘작다’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②~⑤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동사이다.

20 ②

‘착하다’는 형용사로, ‘-자’와 결합하여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오답 해설

- ① ‘자다’는 동사로, ‘-ㄴ-’과 결합하여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③ ‘먹다’는 동사로, ‘-어라’와 결합하여 명령형을 만들 수 있다.
④ ‘쓸다’는 동사로, ‘-어라’와 결합하여 명령형을 만들 수 있다.
⑤ ‘만들다’는 동사로, ‘-자’와 결합하여 청유형을 만들 수 있다.

21 ⑤

‘어떤’은 뒤에 오는 체언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22 ①

‘하늘하늘’은 용언인 ‘떨어진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3 ②

수식언은 문장에서 주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에 포함되는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그러나 ②의 ‘예쁘구나’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용언에 포함된다.

오답 해설

- ① ‘매우’는 용언(형용사) ‘맛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③ ‘이’는 체언(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④ ‘열심히’는 용언(동사) ‘읽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⑤ ‘모든’은 체언(명사) ‘학생’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24 관형사

‘한’은 뒤에 오는 체언인 ‘아이’를 꾸며 주므로 관형사이다.

25 ①

〈보기〉에는 조사 ‘가’와 ‘를’이 쓰였다. ‘이다’를 제외한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가’와 ‘를’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져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은 거북이가 승자라는 뜻이고, ㉡은 토끼가 승자라는 뜻이다.
③ 모든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④ 조사 ‘가’는 ㉠에서는 앞말 ‘거북이’, ㉡에서는 앞말 ‘토끼’에 붙어서 앞말이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하게 한다.
⑤ 조사 ‘를’은 ㉠에서는 앞말 ‘토끼’, ㉡에서는 앞말 ‘거북이’에 붙어서 앞말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기능하게 한다.

26 ⑤

‘이’, ‘을’은 조사로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 ①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②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용언에 대한 설명이다.
④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27 ②

굴에 추가하여 배를 더 사 오라고 하는 상황이므로 무언가를 추가한다는 뜻의 조사 ‘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8 ④

‘응’은 대답을 나타낸다.

29 ⑤

‘유미야(명사+조사)’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부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감탄사는 ‘어머’, ‘아’, ‘야’, ‘네’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므로 ‘유미야’는 감탄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② ‘어머’, ‘아’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④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30 ④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기능을 하는 독립언이다. 다른 단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이다.

31 맛, 그래

‘앗’은 놀람이나 느낌,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190~191 쪽

- 1 ③ 2 ② 3 ③ 4 ③

1 ③

‘옛’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조사인 ‘부터’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로, ‘옛’을 의미가 통하는 명사로 바꿔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옛’은 관형사이므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④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지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⑤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준다.

2 ②

‘뛰놀다’는 동사로, 명령형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나머지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형용사로, 명령형 ‘-아라/-어라’나, 청유형 ‘-자’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다.

3 ③

‘아주아주’, ‘쌍쌍’의 품사는 부사이다. 그림책에서 부사가 많이 쓰이면 상황이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고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가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다.

4 ③

㉠에는 ‘뜨끈뜨끈’, ‘후끈후끈’과 같은 부사가 쓰였고, ㉡에는 부사가 쓰이지 않고 명사가 많이 쓰였다. ㉢과 같이 명사가 많이 쓰이면 전달하려는 내용을 명료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부사를 삭제하고 명사를 주로 쓴다고 해서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이 ㉠보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보다 길이가 더 짧다.
 ⑤ ㉡이 ㉠보다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 어휘 학습
193쪽

1 ①
2 (1) 분류 (2) 불변

1 ①

‘수식하다’는 ‘문장에서, 체언과 용언에 말을 덧붙여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다.’를 뜻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대신하다’는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다.’를 뜻한다.
 ③ ‘분석하다’는 ‘얹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다.’를 뜻한다.
 ④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를 뜻한다.
 ⑤ ‘탐험하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다.’를 뜻한다.

2 (1) 분류 (2) 불변

- (1) 책들을 어떻게 나누어 정리할지에 관한 질문이므로, ‘종류에 따라서 가름.’을 뜻하는 ‘분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새로운 발견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함. 또는 변하게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불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정리
194~195쪽

학습내용 핵심 콰!

1 ④ 2 ② 3 ③ 4 ① 5 ⑤

6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준다. /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한다.

1 ④

①의 ‘은’, ②의 ‘에서’, ③의 ‘를’, ⑤의 ‘가’는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조사)이다. 그러나 ④의 ‘그’는 문장에서 뒤에 오는 체언 ‘옷’을 꾸며 주는 수식언(관형사)이다.

2 ②

나머지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새파랗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 ① 기본형이 ‘보다’인 동사이다.
 ③ 기본형이 ‘들려오다’인 동사이다.
 ④ 기본형이 ‘쏟아지다’인 동사이다.
 ⑤ 기본형이 ‘날아다니다’인 동사이다.

3 ③

〈보기〉는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속한다. ‘아주’는 부사이며 수식언에 속한다.

오답 해설

- ①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②, 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④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4 ①

㉠은 관형사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 준다.
- ③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 ④ ㉠은 관형사, ㉡은 부사이다.
- ⑤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뿐이다.

5 ⑤

'거기'는 앞에 나온 '대피소'를 대신하여 가리킨 말로 적절하게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맑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 ②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 ③ '옛'은 관형사이므로 조사 '부터'와 결합할 수 없다. '예부터'로 써야 한다.
- ④ '따뜻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6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준다. /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한다.
'아주아주'는 '작은'을, '지지배배'는 '지저귀며'를, '파닥파닥'은 '날아갑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로, 글에 부사를 추가하면 장면이나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196~197쪽

- 01 ④ 02 명사인 '동생', '우유', 조사인 '이', '를'이 들어간다.
-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① 08 ①
- 09 부사는 '꼭', '천천히'이고, 관형사는 '두', '이'이다. 10 ④
- 11 ③ 12 ② 13 '예쁘자'의 기본형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예쁜 마음을 갖자.'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01 ④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④는 수식언(관형사,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02 서술형 명사인 '동생', '우유', 조사인 '이', '를'이 들어간다.

㉠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인 '동생', '이', '우유', '를'이 들어간다. '동생', '우유'는 명사, '이', '를'은 조사이다.

평가 기준	배점
㉠에 들어갈 모든 단어와 그 품사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에 들어갈 단어와 그 품사를 일부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에 들어갈 단어는 일부 썼지만 그 품사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3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용언(동사, 형용사)이다. '마신다(마시다)'는 동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04 ⑤

'첫째', '셋', '다섯', '하나'는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체언에 속한다. 반면 ⑤의 '두'는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05 ②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것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산'은 명사, '이것'은 대명사, '둘째'는 수사이다.

오답 해설

- ① '헌'은 관형사, '까지'는 조사, '활짝'은 부사이다.
- ③ '평화'는 명사, '매우'는 부사, '파랗다'는 형용사이다.
- ④ '하나'는 수사, '여기'는 대명사, '달리다'는 동사이다.
- ⑤ '얼굴'은 명사, '모든'은 관형사, '요리하다'는 동사이다.

06 ①

㉠은 체언인 '노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은 '느티나무가 있는 자리'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③ ㉢은 기본형은 '짓다'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④ ㉣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⑤ ㉤은 '(노인의 집 옆) 정원'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07 ①

‘언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우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 ③ ‘가’, ‘마저’는 다른 말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므로 조사이다.
- ④ ‘말끔히’는 뒤에 오는 용언인 ‘끝냈어’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 ⑤ ‘끝냈어’는 기본형이 ‘끝내다’인 동사이다.

08 ①

‘데굴데굴’은 동사인 ‘굴러갔다(굴러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①의 ‘빨리’ 또한 용언 ‘달리는구나(달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9 **서술형** 부사는 ‘꼭’, ‘천천히’이고, 관형사는 ‘두’, ‘이’이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평가 기준	배점
부사와 관형사를 모두 찾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부사와 관형사 중 한 가지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두 찾고 다른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1개만 찾아 서술한 경우	3
부사와 관형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각각 1개씩 찾아 바르게 서술한 경우	1

10 ④

‘만’은 무언가를 제한·한정한다는 뜻을 더해 준다.

오답 해설

- ① ‘이’와 ‘을’은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이다.
- ②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 조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 ③ 사슴을 숨겨 준 대상이 나무꾼 외에도 더 있다는 의미가 더해진다.
- ⑤ 여러 대상 중 사슴 먼저 숨겨 주었다는 의미가 더해진다.

11 ③

‘아이코’, ‘어머나’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며, ‘여보시오’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모두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오답 해설

- ① 일부 부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아이코’, ‘어머나’에만 해당하고, ‘그래’, ‘여보시오’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 ④ 체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조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2 ②

제시된 안전 안내 문자에는 명사가 많이 쓰여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명료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명사를 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사나 관형사 같은 수식언을 적절히 사용하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명료하게 내용이 전달되고 있으며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
- ④ 내용 전달이 분명하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적다.
- ⑤ 수식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이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13 **서술형** ‘예쁘자’의 기본형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예쁜 마음을 갖자.’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어색한 표현을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서술한 경우	5
어색한 표현을 찾아 그 이유를 밝혔으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치지 못했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는 고쳤으나 어색한 표현의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경우	3
어색한 표현만 찾아 쓴 경우	1

- 01 ① 02 ③ 03 ㉠에는 잘 어울린다는 평가의 의도가 담겨 있고, ㉡에는 더 먹지 않겠다는 사양의 의도가 담겨 있다.
 04 ④ 05 ⑤ 06 ④ 07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 ……”라는 언어적 표현과 땀을 닦는 몸짓이나 힘들어하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의도를 알 수 있다. 08 ② 09 ④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시청자가 장면 해설 서비스의 효과와 가치를 알 수 있다. 15 ⑤ 16 ⑤ 17 ②
 18 ⑤ 19 ② 20 ③ 21 ③ 22 ② 23 ②
 24 ‘돌아간다’는 동사, ‘뽀뽀한다’는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5 ③ 26 ④
 27 ⑤ 28 ④ 29 ⑤ 30 ② 31 ④ 32 ③
 33 ③ 34 ④ 35 ③ 36 ③ 37 ② 38 ③
 39 ④ 40 대명사 ‘그곳’이 대신 가리키는 대상이 글 속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01 ①

(가)와 (나)는 대화 상황과 청자, 즉 상황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인 “네가 그린 거니?”의 해석이 달라진다. (다)와 (라)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와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라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즉 상황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인 “괜찮아.”의 해석이 달라진다.

오답 해설

- ② 언어적 표현은 (가), (나)는 “네가 그린 거니?”, (다), (라)는 “괜찮아”로 같다.
 ③ (가)는 친구, (나)는 동생으로 청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청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다. (다), (라)는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지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대화가 지속되는 시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는 친구 사이, (나)는 남매 사이, (다)와 (라)는 친구 사이의 대화 상황으로, 화자와 청자의 친밀감 때문에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③

(가)는 학교에서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친구에게 놀라운 마음을 표현하고 칭찬하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것은 대화 상황을 볼 때 친

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지,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② (가)는 교실에서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 밝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놀라운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이지 친구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인지 의심하는 마음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나)는 동생에게 성난 표정으로 말하는 것과 동생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진 수첩을 펼친 상황을 볼 때, 동생을 야단치려는 의도이지 동생에게 그림 연습을 더 하라고 격려하는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

⑤ (나)는 집에서 동생에게 수첩을 들고 말하고 있으나 성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생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03 서술형 ㉠에는 잘 어울린다는 평가의 의도가 담겨 있고, ㉡에는 더 먹지 않겠다는 사양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다)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라는 대화 상황과 “내 머리 어때?”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자른 머리가 어울리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므로 “괜찮아.”는 머리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라는 대화 상황과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음식을 권하는 상황이므로 “괜찮아.”는 사양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 ㉡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모두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
㉠, ㉡에 담긴 화자의 의도 중 어느 한 가지만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3
㉠이나 ㉡ 중 어느 한 가지에 담긴 화자의 의도만 밝히고, <조건>에 따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4 ④

득점에 실패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괜찮아.”는 속상해하는 선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므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5 ⑤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는 영업 종료 시각인 3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음식점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④ 라온이는 3시까지 영업한다는 표면적 의미만

받아들여 식사를 빨리 하겠다고 반응하였지만, 다감이는 음식 점 주인의 말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였다.

06 ④

(가)에서 학생은 땀을 닦으며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함께 신경 썼다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은 할머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 ② 학생은 할머니 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 의미만을 이해한 것이다.
- ③ 학생은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할머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 ⑤ 학생은 엉뚱한 답변으로 할머니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07 서술형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언어적 표현과 땀을 닦는 몸짓이나 힘들어하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언어적 표현, 땀을 닦는 몸짓이나 힘들어하는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근거로 할머니는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묻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추론의 근거가 되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각각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할머니의 의도를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추론의 근거가 되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중 한 가지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할머니의 의도를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3
근거는 찾지 못하고 할머니의 의도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

08 ②

아빠의 찡그린 표정,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 “너무 크지 않니?”라는 언어적 표현을 종합해 볼 때 아빠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9 ④

아빠의 의도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니 소리를 줄이라는 것인데 딸은 텔레비전이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소리가 잘 들린다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바르게 추론하지 못한 반응이다.

10 ①

상황 맥락과 화자가 사용한 표현 등을 고려하여 추론하며 들으면 화자가 담화에서 전하려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담화의 내용과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11 ③

이 뉴스에는 영상 해설사가 하는 일이 드러날 뿐, 영상 해설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다)를 통해 국가유산청이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국가 유산을 늘려 갈 계획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다)를 통해 영상 해설사가 시각 장애인에게 고궁에 관해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가), (다)를 통해 4대 궁에 장면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장면 해설 서비스가 아직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다)를 통해 스마트폰 수어 설명 서비스가 청각 장애인들(농인들)을 위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12 ⑤

기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알리려는 의도로 이 뉴스를 전달한 것이다. 장면 해설 서비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고궁 관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전달하는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② 시각 장애인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고궁을 방문했을 때 영상 해설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고 생생하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댈 수 있는 팔’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③ ‘친절한 설명’이라는 표현에서 기자가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을 위한 고궁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

13 ②

기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긍정적 반응을 담은 인터뷰를 제시하고 ‘생생하게’, ‘친절한 설명’,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자가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4 **서술형** 시청자가 장면 해설 서비스의 효과와 가치를 알 수 있다.

영상 해설과 스마트폰 수어 설명을 이용해 본 장애인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인터뷰를 보여 줌으로써, 이를 보는 시청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의 효과와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

평가 기준	배점
인터뷰 제시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
인터뷰 제시의 효과를 바르게 밝혔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15 ⑤

연설의 화자가 청자인 교육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등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이 연설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미래가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미래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연설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어린이들이 불행한 현실에 처했다는 내용은 이 연설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어린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연설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어린이들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어린이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6 ⑤

화자는 연설에서 어린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고 묻는 것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에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화자는 어린이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미래에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 것에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 ③ 화자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현재를 즐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현재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

도 아니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학생이나 어린이들의 삶에 교육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에 나타난다.

17 ②

화자는 어린이에 지나지 않고,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있기는 어렵다. ②와 같은 질문은 연설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이나 의도를 갖고 있는지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현재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③ 화자는 ‘현재’, ‘지금’ 등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린이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미래에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왜 심어 주어야 하나고 반문함으로써, 미래를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과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정작 현재를 잊고 산다는 표현을 통해 현재를 잊고 사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8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은 용언(동사, 형용사)이다. 용언 가운데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이다. ‘한다’는 기본형이 ‘하다’인 동사이다.

오답 해설

- ① ‘그’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② ‘아침’, ‘운동’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③ ‘는’, ‘에’, ‘을’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 ④ ‘항상’은 용언 ‘한다(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9 ②

㉠은 대명사, ㉡은 명사이다. 명사와 대명사는 체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은 조사, ③은 감탄사, ④는 부사, ⑤는 용언(동사,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다.

20 ③

‘항상’은 용언 ‘한다(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활짝’ 또한 용언 ‘피었다(피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방’은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② ‘가’는 앞말 ‘나비’에 붙어 쓰이는 조사이다.
- ④ ‘모든’은 뒤에 오는 체언 ‘사람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⑤ ‘기분’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21 ③

‘산’, ‘동식물’은 명사, ‘에는’, ‘이’는 조사, ‘여러’는 관형사, ‘산다(살다)’는 동사로, 제시된 문장에는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22 ②

㉠, ㉡, ㉢, ㉣은 사물이나 사람,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지만, ㉤은 체언인 ‘나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3 ②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곱 마리’에서 ‘일곱’은 뒤에 오는 체언인 ‘마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24 [서술형] ‘돌아간다’는 동사, ‘뽀뽀하다’는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돌아간다(돌아가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뽀뽀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평가 기준	배점
‘돌아간다’와 ‘뽀뽀하다’의 품사를 모두 밝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돌아간다’와 ‘뽀뽀하다’의 품사를 모두 밝혔으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
‘돌아간다’와 ‘뽀뽀하다’의 품사를 모두 밝혔으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둘 다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25 ③

‘여기’와 ‘이것’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우유’는 명사, ‘듭니다’는 기본형이 ‘들다’인 동사이다.

② ‘과일’은 명사, ‘평평합니다’는 기본형이 ‘평평하다’인 형용사이다.

④ ‘에서’는 조사, ‘하나’는 수사이다.

⑤ ‘여러’는 관형사, ‘장면’은 명사이다.

26 ④

‘자세히’는 용언 ‘보면(보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의 ‘매우’ 또한 용언 ‘흥미로웠다(흥미롭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작니(작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② ‘나’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③ ‘헌’은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⑤ ‘에게’는 앞말 ‘영미’에 붙어 쓰이는 조사이다.

27 ⑤

<보기>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사의 예이다. ⑤ ‘집어넣어야’는 기본형이 ‘집어넣다’인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어둡다’, ‘맵다’, ‘요란하다’, ‘좋다’는 모두 형용사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28 ④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이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말로 이 둘을 묶어 수식언이라고 한다. ①, ②에서는 부사 ‘참’, ‘엄청’이 각각 용언 ‘맛있겠다(맛있다)’, ‘고프다’를 꾸며 준다. ③에서는 관형사 ‘새’가 체언 ‘운동화’를 꾸며 준다. ⑤에서는 부사 ‘정말’이 용언 ‘섭섭했다(섭섭하다)’를 꾸며 준다. ④에서는 수식언을 찾아볼 수 없다.

29 ⑤

‘이다’는 조사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여 몸체 기능을 하는 것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30 ②

<보기>는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언에는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다. ‘선재야’는 ‘선재’(명사)와 ‘야’(조사)가 결합한 것이지 감탄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여보세요’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③, ④ ‘아뽀씨’, ‘맙소사’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31 ④

‘기뻐(기쁘다)’의 품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① ‘모시럼(모시다)’, ② ‘부는구나(불다)’, ③ ‘고쳤다(고치다)’, ⑤ ‘읽었다(읽다)’의 품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32 ③

‘약간’은 뒤에 오는 용언인 ‘매운데(맵다)’를, ‘은근히’는 뒤에 오는 용언인 ‘맛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과 ㉡은 품사가 서로 같다.

오답 해설

- ① ‘온갖’은 뒤에 오는 체언인 ‘양념’을, ‘이’는 뒤에 오는 체언인 ‘떡볶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몹시’는 뒤에 오는 용언인 ‘달다’를 꾸며 주는 부사로 ‘약간’과 품사가 같다.
④ ㉠, ㉡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 ㉣, ㉤은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⑤ ㉠~㉤은 모두 수식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33 ③

‘열심히’는 뒤에 오는 ‘공부할게요(공부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34 ④

‘어느’는 ‘숲속’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그런’은 ‘토끼’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가장’은 ‘빠르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35 ③

‘만’은 무언가를 제한하거나 한정한다는 뜻을 더해 주는 것일 뿐, 앞말인 ‘거북이’가 주어 역할을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은 주어가 거북이지만 ㉡에서는 주어가 토끼로 바뀐다.
② ‘도’는 무언가를 추가한다는 뜻을 더한다.
④ ‘만’은 무언가를 제한하거나 한정한다는 뜻을 더한다.
⑤ ‘도’, ‘만’은 보조사로,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36 ③

‘을’은 관계언(조사)으로,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관형사,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당신’은 대명사이다.
② ‘잃어버린’은 동사이다.
④ ‘앗’은 감탄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⑤ ‘사람’은 체언(명사)이므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37 ②

‘알았어’는 기본형이 ‘알다’인 동사이다.

38 ③

‘너무’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부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면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진지하고 엄격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39 ④

- ㉠ ‘되다’는 동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살피다’는 동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예’는 명사이므로 조사 ‘부터’와 결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깨끗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깨끗하게 살아가자.’처럼 바꾸어 써야 한다.

40 서술형 대명사 ‘그곳’이 대신 가리키는 대상이 글 속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까닭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5
까닭을 바르게 썼으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대명사이기 때문이다.’라고만 쓴 경우	1

4. 성장의 시간

(1) 옥수수 뽀빠

확인 문제

213~224쪽

1 ①	2 ⑤	3 ①	4 ③
5 ④	6 ⑤	7 두 번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나’가 다치고 친구의 스마트폰도 깨졌기 때문이다.	
8 스마트폰 수리비의 책임을 아저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이다.			
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③	14 ①, ④	15 ⑤

1 ①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김현성)’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 ⑤

트럭이 ‘나’의 자전거 옆을 스쳤으나, ‘나’가 넘어진 것은 ‘나’가 당황해 핸들을 크게 꺾었기 때문이므로 트럭이 ‘나’를 치었다는 것은 알맞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나’는 풀숲에 굴러서 까진 곳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재준이와의 자전거 경주에서 지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아 자존심이 강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트럭 아저씨는 계속 괜찮다고 말하는 ‘나’에게 병원에 꼭 가 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책임감이 강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①

아저씨가 ‘나’에게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 준 것으로 보아 명함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③

‘나’는 옥수수 트럭 아저씨의 전화를 기다리기는커녕 아저씨의 전화를 괜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④ ‘나’가 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나’의 가정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④

선글라스 아저씨는 다친 ‘나’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했으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③ 선글라스 아저씨는 자신의 운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야, 인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라며 오히려 크게 다친 ‘나’를 탓했다.

6 ⑤

‘나’는 평소 재준이와의 자전거 경주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다. 또한 검은 자동차에 치여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자동차에 치인 것을 창피하게 여기며 아프다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이고 무시를 당할까 봐 즉, 자존심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7 두 번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나’가 다치고 친구의 스마트폰도 깨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틀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두 번째 교통사고의 결과 몸도 다치고 재준이에게 빌린 스마트폰 액정에도 금이 갔다.

8 스마트폰 수리비의 책임을 아저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이다.

재준이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검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연락처를 모르고, ‘나’는 수리비를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므로 ‘나’는 연락처를 아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9 ②

남에게 넘겨썩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를 뜻하는 말은 ‘덤터기’이다.

10 ④

<보기>에 드러난 주된 갈등은 ‘나’의 부모님과 옥수수 아저씨의 갈등이므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다.

11 ③

‘나’는 거짓말로 옥수수 아저씨를 난처하게 한 것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 ㉠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가 자기 때문에 ‘나’가 다쳤다고 생각하면 합의금을 받기 쉬워지므로 어쨌든 잘된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느낀다.

12 ④

옥수수 아저씨는 교통사고 당시 천식이 있는 아기의 상태가

심각해 정신이 없어서 ‘나’에게 전화번호를 적어 준 뒤 급히 트럭을 타고 떠났다.

13 ③

옥수수과 계란빵은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소재이다.

14 ①, ④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옥수수 아저씨의 사연을 알게 된 후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을 악용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아저씨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15 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행동으로 양심이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 역시 죽어 있었다.”라고 한 것이다.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226~229 쪽

1 ① 2 ① 3 ② 4 ⑤ 5 작품 속 인물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한 탐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①

‘나’는 옥수수 트럭과의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날 검은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답 해설

② 재준이의 스마트폰이 깨진 것은 검은 승용차 아저씨와의 교통사고 때문이다.

③ ‘나’가 엄마의 심부름을 가다가 부딪힌 것은 검은 승용차이다.

④ 검은 승용차의 운전자는 ‘나’를 닮고 무책임하게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 버렸다. ‘나’를 걱정하고 병문안을 온 것은 옥수수 트럭 아저씨이다.

⑤ ‘나’는 재준이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2 ①

<보기>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미안함을 느껴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3 ②

‘나’는 스마트폰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했으나, 옥수수 아저씨와의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했다. 따라서 <보기>의 장면 이후 ‘나’가 옥수수 아저씨에게 할 말로 알맞은 것은 ②이다.

4 ⑤

이 글의 주제는 거짓말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기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5 작품 속 인물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한 탐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 속 인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도 성찰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230~233 쪽

1 ⑤ 2 ③ 3 ④ 4 ①

1 ⑤

경보를 시작하기 전 만복이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자는 무기력한 학생이었다.

2 ③

‘S# 91’에서 경기에 기권하고 드러누운 만복이는 편안함을 느꼈다.

3 ④

‘S# 91’에서 만복이는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경기에서 기권한다.

4 ①

자신을 성장시킨 작품 소개 활동에서 다양한 인물의 삶을 소개하였는가는 평가 기준이 아니다. 인물의 수는 상관이 없다.

- 1 (1) 체면 (2) 근성 2 (1) 겹언쩍다 (2) 시름 (3) 뺑소니

1 (1) 체면 (2) 근성

(1)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반복한 상황에서는 문맥상 빈칸에 ‘체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근성’은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을 의미하며, ‘승부 근성’, ‘아부 근성’ 등과 같이 쓰인다. 문맥상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근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1) 겹언쩍다 (2) 시름 (3) 뺑소니

(1)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겹언쩍다’로 적는다.

(2)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시름’으로 적는다.

(3)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일. 또는 그런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뺑소니’로 적는다.

소단원 핵심 정리

236~237쪽

학습 제재 정리 **꼭!**

교통사고, 주인공, 자전거, 뺑소니

학습 내용 핵심 **꼭!**

- 1 ③ 2 ⑤ 3 ⑤

1 ③

〈보기〉에서 ‘나’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옥수수 아저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2 ⑤

이 글의 주인공 ‘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나’가 ‘거짓말’과 ‘양심’에 대해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③ ‘나’가 거짓말을 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실을 고백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⑤

이 글의 주인공 ‘나’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려 다른 사람을 속인 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진실을 고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③ 안전은 이 작품의 핵심이 아니다.

소단원 핵심 문제

238~239쪽

- 01 ③ 02 ④ 03 ② 04 ‘나’를 걱정해 주고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 ③ 06 ⑤ 07 ③ 08 스마트폰이 깨진 책임을 옥수수 아저씨에게 떠넘기려고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01 ③

첫 번째 교통사고 결과 자전거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옥수수 트럭과의 교통사고와 다음 날 검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즉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④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에 가지 않고 괜찮다고 말했다.

02 ④

소설은 꾸며 낸 이야기지만 작품 속 인물이 겪는 사건과 그에 따른 심리 변화, 갈등 해결 방법 등을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삶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성찰할 수 있다.

03 ②

(다)~(라)에서 ‘나’와 선글라스 아저씨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선글라스 아저씨가 ‘나’의 탓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두드러진 갈등은 ‘나’와 선글라스 아저씨의 갈등이다.

04 **서술형** ‘나’를 걱정해 주고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아저씨의 성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아저씨의 성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바르게 썼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아저씨의 성격에 대한 언급만 있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5 ③

천식을 앓고 있는 것은 옥수수 아저씨가 아니라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이다.

오답 해설

② 늦둥이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06 ⑤

‘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옥수수 아저씨의 사연을 알게 된 후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07 ③

(다)에서 ‘나’는 거짓말을 해서 선량한 옥수수 아저씨를 속이려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옥수수의 감축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08 서술형 스마트폰이 깨진 책임을 옥수수 아저씨에게 떠넘기려고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깨진 것은 옥수수 아저씨의 잘못이 아님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물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옥수수 아저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전화를 걸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책임’과 ‘거짓말’을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책임’과 ‘거짓말’을 포함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책임’이나 ‘거짓말’ 중 하나의 단어만 포함하였고,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활동 응용 문제 - 이해와 탐구

242~247쪽

1 ① 2 ⑤ 3 ③ 4 ②, ④ 5 ④
6 ②, ⑤ 7 ⑤ 8 ④ 9 ⑤

1 ①

다영이는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글감으로 선택했다.

2 ⑤

다영이는 경험과 정서를 구체화할 때 ‘경험을 어떻게 정리할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지?’, ‘경험한 일과 그때의 생각 또는 감정을 중심으로 정리해야지.’, ‘그때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단어를 생각해 볼래.’, ‘경험에서 느끼거나 깨달은 점이 무엇이지?’, ‘어떤 유형으로 표현해 볼까?’, ‘나의 경험과 정서,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내 글을 읽는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야.’ 등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친구들이 자신의 경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3 ③

다영이는 자신의 경험과 정서,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4 ②, ④

다영이는 글의 처음 부분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은 추가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주제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삭제해야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다.
- ③ 다영이는 자신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물고기’에서 ‘안녕, 나의 물고기’로 수정했다.
- ⑤ 다영이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더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5 ④

<안녕, 나의 물고기>의 갈래는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과 그 속에서 느낀 정서를 자유롭게 쓴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정서를 운율로 표현한 글은 시이다.

- ②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글은 희곡이다.
 ③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은 설명문이다.
 ⑤ 글쓴이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진 글은 논설문이다.

6 ②, ⑤

다영이는 물고기가 떠난 후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이는 ‘힘이 빠진 채 ~ 하는 생각에 미안했다.’에 잘 드러나 있다.

7 ⑤

다영이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카페에 가기 전날 물고기가 죽어 눈이 퐁퐁 부을 정도로 울었기 때문에 생일 카페에 가기 전날 설레서 잠을 못 이뤘다고 볼 수 없다.

8 ④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 쓰기의 효과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경험을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자신을 성찰하고 감정을 정리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9 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 문제 해결과 적용

248~251 쪽

1 ③ **2** ⑤ **3** ③ **4** ② **5** ⑤

1 ③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첫 번째 과정은 ‘경험 떠올리기’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정해야 한다.

2 ⑤

비유와 상징 표현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

기의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경험을 구체화하고 정리할 때 활용할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마인드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감정을 느꼈는지 정리해 볼 수 있다.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법을 통해 경험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③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④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리하면 경험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3 ③

경험이 잘 드러나는 제목 정하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4 ②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5 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 어휘 학습

253쪽

- 1** (1) 정서 (2) 고스란히 (3) 죄책감
2 (1) ㉠ (2) ㉡ (3) ㉢ (4) ㉣

1 (1) 정서 (2) 고스란히 (3) 죄책감

- (1)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생각.’을 뜻한다.
 (2) ‘고스란히’는 ‘건드리지 아니하여 조금도 축이 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한 상태.’를 뜻한다.
 (3)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2 (1) ㉠ (2) ㉡ (3) ㉢ (4) ㉣

- (1) ‘치유되다’는 ‘치료되어 병이 낫다.’를 뜻한다.
 (2) ‘영롱하다’는 ‘광채가 찬란하다.’를 뜻한다.

- (3) '진솔하다'는 '진실하고 솔직하다.'를 뜻한다.
 (4) '회상하다'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를 뜻한다.

소단원 핵심 정리

254~255쪽

학습내용 핵심 **꼭!**

- 1 ③ 2 ② 3 ② 4 ⑤

1 ③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 경험 떠올리기 → ㉡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 → ㉢ 내용 조직하기 → ㉣ 표현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②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3 ②

<안녕, 나의 물고기>는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띠고,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 수필은 객관적인 성격의 글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격의 글이다.
 ㉡ 수필은 정해진 형식나 제약이 거의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

4 ⑤

<안녕, 나의 물고기>는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과 감정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글쓴이는 이 글을 쓰면서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운율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은 주로 시를 쓸 때 고려할 사항이다.
 ②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가 진솔하게 표현된 글로, 비현실성이 드러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은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사항이다.
 ④ 수필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글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256~257쪽

- 01 ④ 02 ⑤ 03 자신이 기르던 물고기를 떠나보낸 경험을 잘 드러내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였다. 04 ①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1 ④

(가)는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 과정으로, 글감으로 선택한 경험과 그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나)는 '내용 조직하기' 과정으로, 경험과 정서를 구체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 쓸 내용을 개요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02 ⑤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조직할 때 끝부분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 부분에서 다룬 경험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글의 통일성이 생기고 주제가 잘 드러난다.

03 **서술형** 자신이 기르던 물고기를 떠나보낸 경험을 잘 드러내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였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글의 제목은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이 기르던 물고기의 죽음을 경험하며 그때 느낀 정서와 물고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 제목을 '안녕, 나의 물고기'로 수정하였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

04 ①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를 하면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주관적인 글이므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쓰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진솔하게 쓰는 것이므로 평범한 삶을 뛰어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쓰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알 수 없다.

05 ⑤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 글쓴이가 경험 속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적은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운율이 잘 드러나는 글은 시이다.
- ② 수필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글이다.
- ③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담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 ④ 글쓴이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꾸며 적은 글은 소설이다.

06 ④

㉠~㉣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 동생의 물고기로부터 위로 받음. → ㉡ 생일 선물로 물고기를 받기로 함. → ㉢ 물고기를 데려온 날 한참 동안 어항 앞에서 사진을 찍음. → ㉣ 물고기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 보며 응원함. → ㉤ 물고기의 죽음을 오래 기억하기로 다짐함.'이다.

07 ②

(나)의 '노란색 꼬리지느러미가 ~ 보석처럼 아름다웠다.'에서 글쓴이는 물고기의 모습과 색깔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고기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물고기를 맛을 준비를 하는 모습과 어항 앞에서 한참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물고기를 키우게 되어 신나는 마음과 물고기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다.

08 ④

(다)~(마)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물고기가 비실거리다가 결국 죽은 경험 속에서 안타까움과 무서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오답 해설

- ①, ③ (라)에서 글쓴이는 '괜히 내게 와서 그렇게 아프게 떠났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 ② (라)에서 글쓴이는 물고기가 죽은 것을 보고 무섭고 멍한 느낌이 들었다.
- ⑤ (다)에서 물고기가 비실거리는 모습을 보고 글쓴이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대단원 종합 문제

260~267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나'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다. 06 ④ 07 ⑤ 08 ⑤ 09 선글라스 아저씨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급히 떠났으므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10 ① 11 ⑤ 12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13 ②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⑤ 20 ① 21 ② 22 ④ 23 ④ 24 ㉠ 동생이 학교에서 물고기를 받아 옴. ㉡ 죄책감이 들어 미안하고 슬펐어. 25 감정이 정리가 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다. /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26 ③ 27 ⑤ 28 ③ 29 ⑤ 30 ② 31 ⑤ 32 ⑤ 33 ⑤

01 ④

이 글은 주인공 '나'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주인공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생을 그리고 있지 않다.

02 ⑤

'나'는 (다)에서 까진 곳이 없을 정도로 별로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에서 '나'는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하고 있다.
- ② '나'는 재준이와의 자전거 경주에서 지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급히 꺾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③, ④ 아저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나'에게 달려와 걱정해 주고 병원에 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03 ③

(가)에서 '나'는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하면서 재준이에게 질까 봐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나'는 자전거 경주 중 트럭이 자전거 옆을 스쳐 지나가자 놀라고 당황했음을 알 수 있다.

04 ③

사고로 넘어졌을 때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저씨는 '나'가 더 큰 부상을 입을까 봐 걱정돼서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말한 것이다. 아저씨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나'에게 달려와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며 병원에 가 보라고 권하면서 ‘나’를 걱정하고 있다.

05 서술형 ‘나’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다.

(가)에서 ‘나’가 재준이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전거 경주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가 자존심이 강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은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06 ④

(가)~(라)에서 ‘나’가 부모님이 일찍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게임 캐릭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다)에서 게임에 몰두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나’는 계속 통화를 이어 가는 아저씨가 눈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화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라)에서 ‘나’가 “아니예요. 어제도 사고 났는데 멀쩡했어요.”라고 한 말에서 ‘나’가 이를 연속으로 사고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나’는 이번 판은 이길 수 있었는데 아저씨 때문에 캐릭터가 드러눕게 되었다고 하며 도움이 안 되는 아저씨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7 ⑤

(다)에서 ‘나’는 사고로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하얀 자동차가 아니라 검은 자동차에 부딪혔다.
- ② ‘나’는 게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 ③ 선글라스 아저씨는 ‘나’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급히 떠났다.
- ④ 선글라스 아저씨는 사고 후 주위를 살폈으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08 ⑤

(나)에서 아저씨는 ‘나’가 아픈 곳이 없다고 했음에도 혹시 ‘나’

에게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과 통화하고자 전화를 걸었다.

09 서술형 선글라스 아저씨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급히 떠났으므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선글라스 아저씨는 골목에서 차로 ‘나’를 치고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를 통해 선글라스 아저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정확히 서술한 경우	5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10 ①

(가)에는 ‘나’가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난다.

11 ⑤

‘주의나 경계를 하도록 소리를 울리는 장치. 또는 그 소리.’는 ‘경적’의 의미이다. ‘정적’은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함.’을 뜻한다.

12 서술형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나)에서 ‘나’는 스마트폰 수리비가 필요해서 옥수수 아저씨 때문에 스마트폰이 망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에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나’의 심리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나’의 심리를 포함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13 ②

㉔에서 ‘나’는 깨진 스마트폰 수리비 때문에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며 망설인다. ㉕에서 ‘나’는 병실 사람들에게 합의금 이야기를 들은 후 스마트폰 수리비도 물어주고 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는다.

14 ①

이 글은 주인공 ‘나’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오답 해설

- ②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3인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다.
-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5 ③

이 글과 같이 성장을 다룬 소설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16 ②

‘나’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아저씨의 사연을 알게 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잘못을 깨달은 ‘나’는 병동 밖으로 뛰쳐나가 아저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한다.

17 ④

(가)에서 ‘나’는 어젯밤 먹살을 잡혔던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저씨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여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므로 ㉠에는 ‘답답해졌다’가 적절하다. (다)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형편을 모두 알게 된 후 미안함,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이므로 ㉢에는 ‘불편해졌다’가 적절하다.

18 ②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시나리오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글이 아니라 꾸며 쓴 글이다.
- ③ 이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
- ④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
- ⑤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쓴 글이 아니라 꾸며 쓴 글이다.

19 ⑤

(나)를 통해 만복이가 경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걸어가다가 발을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만복이는 자신이 원해서 육상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권유로 들어갔다.
- ② 만복이는 경보 대회에서 기권하였다.

- ③ 만복이는 끝까지 멀미를 극복하지 못했다.
- ④ 만복이는 태어날 때부터 멀미가 심했다.

20 ①

(다)에서 만복이는 경보 대회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다 넘어지고 ‘어쩌면 그냥,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편안함을 느낀다.

오답 해설

- ② 만복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만복이는 경보 대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④ 만복이는 경보 대회에서 기권하였다.
- ⑤ 만복이의 적성에 경보가 아닌 비행기 조종이 더 맞다고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1 ②

(라)에서 만복이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은 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된 만복이가 느낄 심리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②이다.

22 ④

이 글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은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글쓴이가 물고기를 떠나보냈던 개인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이 글의 글쓴이는 물고기를 떠나보낸 경험 속에서 느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안녕, 나의 물고기. 오래오래 기억할게.’와 같이 물고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나)에서 물고기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빗대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꼬리지느러미를 ‘나비의 날개’에 빗대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23 ④

(라)를 통해 글쓴이가 굴색 거피 이전에도 물고기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서술형]** ㉠ 동생이 학교에서 물고기를 받아 옴. ㉡ 죄책감이 들어 미안하고 슬펐어.

평가 기준	배점
㉠과 ㉡ 모두 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5
㉠과 ㉡ 중 한 가지만 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3

25 서술형 감정이 정리가 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다. /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핵심어를 포함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핵심어를 포함하였지만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26 ③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까?’는 적절하지 않다.

27 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실수했던 일이나 후회했던 일도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경험을 글감으로 선택하였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28 ③
(가)~(다)는 소설이고, (라)~(마)는 수필이다. (라)~(마)는 글 쓰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은 글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쓴 대본이 아니다.

29 ⑤
(마)에서 글쓰이는 죽기 직전인 굴색 거피가 축 처져서 몸부림도 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30 ②
“급하게 오느라 음료수도 못 사왔네.”라는 옥수수 아저씨의 말에서 아저씨가 음료수를 주고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 ⑤
(가)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당황스러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32 ⑤
‘만 원짜리 지폐’는 옥수수 아저씨가 옥수수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땀 흘려 일하며 가정과 아픈 아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저씨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33 ⑤

‘나’는 뜨끈뜨끈한 옥수수를 손으로 잡으면서, 그 느낌이 손바닥을 잡아 주었던 옥수수 아저씨의 손과 비슷하다고 했다. 따라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모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white lines on a pink background.





메모

A series of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pink sticky note area.





메모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white lines on a pink background.

